

A Basic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n Goyang City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김용덕
김은지

A Basic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n Goyang City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책임자

김용덕(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은지(고양시정연구원, 시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일 2023년 10월 31일

저자 김용덕, 김은지

발행인 김현호

발행처 고양시정연구원

주소 1039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방송지원센터 11층

전화 031-8073-8341

홈페이지 www.gyri.re.kr

S N S <https://www.facebook.com/goyangre/>

I S B N 979-11-92971-10-0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고양시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고양시서체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목 차

요약	i
제1장 서론	1
제2장 벤처투자 개념	7
제1절 벤처투자 개념과 유형	9
제2절 벤처투자 특징과 효과	18
제3장 국내 벤처투자 현황	25
제1절 전체 현황	27
제2절 산업별 현황	41
제3절 지역별 현황	50
제4절 벤처투자 관련 정책 현황	54
제5절 소결	63
제4장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67
제1절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현황	69
제2절 벤처투자 종사자 정성조사 결과 및 분석	74
제3절 향후 기본 방향	80
제5장 결론	83

참고문헌 87

Abstract 91

표 목차

[표 2-1] 벤처투자 관련 용어 설명	10
[표 2-2] 벤처투자자 유형 및 관할 기관	16
[표 2-3] 투자 자금 유형 및 투자 계약 주체별 사례	17
[표 2-4] 벤처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20
[표 3-1] 벤처투자금융 조합결성 및 운영 금액(2018~2022년)	28
[표 3-2] 벤처투자기업 투자 잔액 상위 20개 투자사	30
[표 3-3] 한국모태펀드 주 출자 분야	32
[표 3-4]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위탁 운영사 6곳 선정 결과 (2023년.7)	34
[표 3-5] 경남벤처투자 연혁 및 펀드 운용 현황 (2022년 기준)	35
[표 3-6]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39
[표 3-7] 최근 5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40
[표 3-8]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40
[표 3-9] 최근 5년간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43
[표 3-10] 업종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2022년)	45
[표 3-11] 국내 업종별 벤처기업체 현황	46
[표 3-12] 업력별 벤처기업 투자 비중	47
[표 3-13] 업력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48
[표 3-14] 국내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49
[표 3-15]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2022년)	51
[표 3-16] 지역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2022년)	52
[표 3-17]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53
[표 3-18] 벤처투자법 제정 목표	54
[표 3-19] 벤처투자법 제정 전후 벤처투자펀드 종류 (조합 수는 '19년 말 기준)	56
[표 3-20]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요건	57
[표 3-21]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변화	60

[표 3-22]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	62
[표 4-1] 고양벤처펀드 연도별 출자 계획 (단위: 천원)	70
[표 4-2] 정성조사 응답자 참석자 프로필	75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4
[그림 2-1] 벤처투자 구조	12
[그림 2-2]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13
[그림 3-1] 국내 벤처투자기업 등록 및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28
[그림 3-2] 신규조합 조합원 비중(2018~2022년)	29
[그림 3-3]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운용구조	31
[그림 3-4] 한국벤처투자 조직도	33
[그림 3-5] 벤처투자기업 신규 투자 현황(2022년 기준)	41
[그림 3-6]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 관련 법률의 통합	55
[그림 3-7]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기준 조정	58

<요 약>

□ 서론

- (벤처투자 개념)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의미
- (벤처투자자 유형) 전문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으로 구분

□ 국내 벤처투자 현황

- 전체 현황
 - 국내 벤처투자기업은 2022년 현재 총 231개사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 국내 대표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모태펀드 운영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있으며,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벤처투자 등이 있음
- 산업별 현황
 - (규모) 국내 벤처투자 펀드 집행 규모는 2022년 6조 7,640억 원이며 역대 가장 큰 규모인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 (업종별) 유통·서비스,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3개 업종이 전체 70.5% 차지
 - (업력별) 창업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40.4%로 가장 높고, 창업 후기 기업 30%, 창업 초기 기업은 29.6% 수준
- 지역별 현황
 - 2022년 현재 국내 전체 6조 7,640억 원 중에서 서울에서 투자된 벤처투자액이 3조 7,445억 원으로 55.3%를 차지
 - 벤처투자액 비중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3.1%,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9.9%, 나머지 도시 7.7% 수준


□ 벤처투자 종사자 정성조사 결과

- 벤처투자 종사자들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벤처투자를 하기 전에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
- 고양특례시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추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이 필요
-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을 통한 선행 투자, 지자체 중심의 인프라 구성, 특화산업 적극 육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지역 내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이 되면, 벤처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과 투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벤처투자 상황은 어려우며, 고양특례시도 타 도시에 비하여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상황
-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
- 단기적으로 기존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

-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개념, 특징, 현황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접근 방법, 조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므로 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
 - 다양한 산업군, 기업 규모, 출자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 추진 필요
 - 펀드 조성 전후에 창업기업, 스타트업, 투자 주체(투자사, 기업, 대학 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홍보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 이외에도 지속적인 벤처투자 자금 조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 추진을 고려할 필요
-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을 통해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과 투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특히,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제1장
서론

벤처투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학술적 정의는 거의 유사하며, 자금 조달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벤처투자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적으로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자적인 역할과 조언을 수행하는 자본 공여와 컨설팅 제공의 특성을 가지는 투자 형태’라고 정의된다(Warne, 1988).

일반적으로 기업은 지속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며, 자금 조달은 벤처기업의 생존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rader & Simon, 1997). 특히,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기업은 매출이 비용을 뛰어넘어 이익이 발생하지만, 초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며,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자금 조달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다수 벤처기업은 투자를 통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투자는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 외에도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벤처투자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상장 실적과 상장 후 성장성이 일반 기업보다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신혜란 외, 2022). 또한 벤처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상장 소요시간이 짧고, 상장 직전 재무적 성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훈·박성환, 201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벤처투자는 기업의 운영과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을 발표한 이후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월)」까지 수립하면서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산업 분야별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1,000억 규모의 벤처투자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과 대형 투자 또는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스케일업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향후 2,500억 원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는 벤처투자회사인 (주)경남벤처투자를 설립하여 중소 벤처·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 (주)경남벤처투자는 은행권의 용자 방식 대신 자본 투자 형태로 운용하여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산업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고양특례시에서도 벤처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양벤처펀드를 조성하였으며, 추가로 청년창업펀드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국내 벤처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선 8기에서 벤처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벤처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국내 벤처투자의 산업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관련 사업 평가와 함께 예산 활용 관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인프라, 제도 등이 추가로 필요한지,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수행체계는 [그림 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첫째,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수행체계를 설정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벤처 투자의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둘째, 국내 벤처투자 관련 현황에 대해 전체 현황, 산업별, 지역별, 정책 현황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셋째,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 벤처투자 개념

제1절 벤처투자 개념과 유형

제2절 벤처투자 특징과 효과

제철 벤처투자 개념과 유형

1. 벤처투자 개념

벤처투자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2제2호).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벤처투자는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자적인 역할과 조언을 수행하는, 자본 공여와 컨설팅 제공의 특성을 가지는 투자 형태’라고 정의된다(Warne, 1988). 즉, 벤처투자란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및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의미한다.

벤처투자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창업은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이 있는 창업자가 고객과 시장 매력에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본/인력/기술력/경영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기업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활동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집행조합원(GP),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유한책임조합원(LP), 중소벤처기업부, 피투자기업, 수탁은행은 주체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조합 형태로는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이 있다. 회수 유형에는 IPO, M&A, 상환, 장외매각 등이 있다.

벤처투자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VC는 Venture Capital(벤처캐피탈)의 약자로,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전문 지식의 일종을 뜻한다. 혹은 주식투자 형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그 자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선호하는 기업을 후속으로 투자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VC(벤처캐피탈)는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과 독립벤처캐피탈(Independent Venture Capital: IVC)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박지영·신현한, 2020). CVC는 피투자기업과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 피투자기

업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상호 간 지식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IVC는 피투자기업의 IPO 또는 인수합병과 같은 회수과정을 통해 자본이익을 추구한다. VC와 함께 언급되는 AC는 Accelerator(엑셀러레이터)의 약자로,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와 함께 종합적인 조력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투자자를 말한다(윤삼근, 2019). 엑셀러레이터는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자, 인큐베이터 등과는 다르게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Cohen&Hochberg, 2014). 다음으로 엔젤 투자자(Angel Investor)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뜻한다. 벤처투자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벤처투자 관련 용어 설명

용어	정의	
벤처투자	· 성장성이 높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로서, 엔젤투자, 창업기획자 및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의미	
주체자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의 약자로 조합의 운영과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창업기획자	초기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
	유한책임조합원(LP)	Limited Partner의 약자로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 중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벤처투자에 관한 정책, 관리, 감독,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정부기관
	피투자기업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는 기업
	수탁은행	조합 출자자 보호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여탁받고 투자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기관
조합형태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등이 초기 기업 등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
회수유형	IPO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 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 유형
	M&A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을 통한 차익 획득을 하는 자금 회수 유형
	상환	상환주식 등이 기한이 되어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는 행위
	장외매각	세컨더리펀드, 구주매매 등 장외매각을 통한 자금 회수 유형
창업	· 창업자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을 정의하는 것, 이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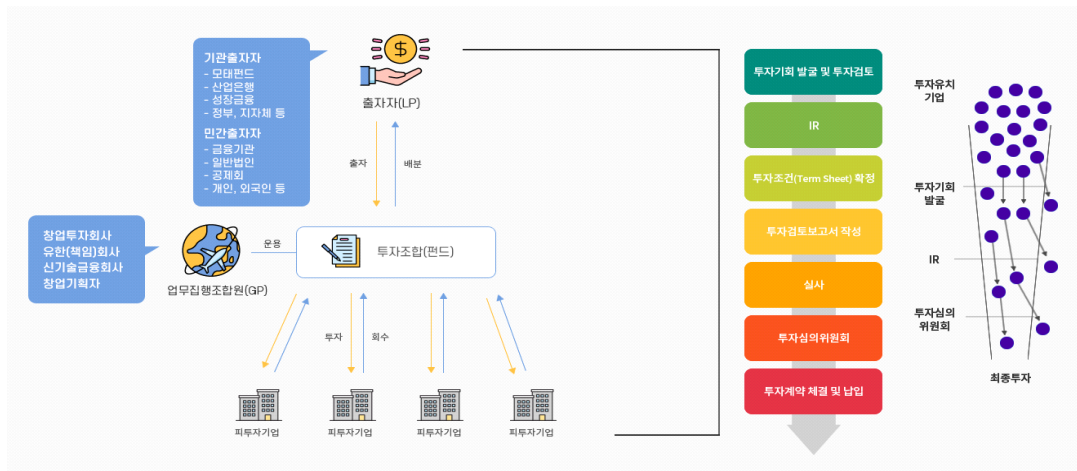
	<p>창출을 위한 사업의 기초를 세우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이 있는 창업자가 고객과 시장매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본, 인력, 기술력, 경영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기업으로서 면모를 갖추는 것
사업 아이디어	· 무엇을 사업 대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물건(유·무형 솔루션, 서비스 등)을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
자본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사업장, 설비, 장비, 자재 등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것
기업가정신	· 신념, 끈기, 통찰력 등을 통해 판매 및 마케팅을 위한 영업조직 구축
벤처창업	· 기업가정신과 경영능력이 있는 창업자가 고객과 시장매력이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본/인력/기술력/경영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기업가로서 면모를 갖추고 활동하기 위한 기초를 구축하는 것
벤처캐피탈(V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nture Capital,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제공하는 자금이나 전문 지식의 일종 · 위험성은 크나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 · 벤처기업에 주식투자 형식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 또는 그 자본 자체 · 장래성은 있으나 자본과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받기 어려운 기업의 창업 초기 단계에 자본 참여로 위험성을 기업가와 공동 부담하고 자금, 경영관리, 기술지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이득을 추구하는 자본 또는 금융활동을 의미
IR(Investor Rel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 활동 ·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사를 대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모델, 사업전략, 매출, 투자/회수 계획 등을 소개하는 행위
액셀러레이터(A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는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와 함께 종합적인 조력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화하는 투자자를 말함(윤삼근, 2019). · 액셀러레이터의 특징은 벤처캐피탈, 엔젤, 인큐베이터 등과는 다르게 초기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임(Cohen&Hochberg, 2014). · 초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나, 액셀러레이터는 투자뿐 아니라 경영컨설팅, 후속투자자(VC) 판로 개척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 성장요소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엔젤투자자(AI)	· Angel Investor,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 벤처기업,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과 경영 지도를 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뜻함.
팁스(TIPS)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자료〉 이명준·조성국·정성욱(2021); 러닝메이트(2018); 벤처투자종합포털, 이택경(2021)을 기초로 보완하였음.

앞서 설명한 벤처투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투자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벤처투자 구조는 [그림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태펀드, 산업은행, 정부, 지자체 등의 기관출자자와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등의 민간출자자가 출자를 하면 투자조합

(펀드)이 피투자기업에 자금을 투자한다. 투자조합(펀드)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투자받은 돈을 회수하여 출자자(LP)에게 배분한다. 이러한 과정은 ‘투자기획 발굴 및 투자검토→IR→투자조건 확정→투자검토보고서 작성→실사→투자심의위원회→투자계약 체결 및 납입’의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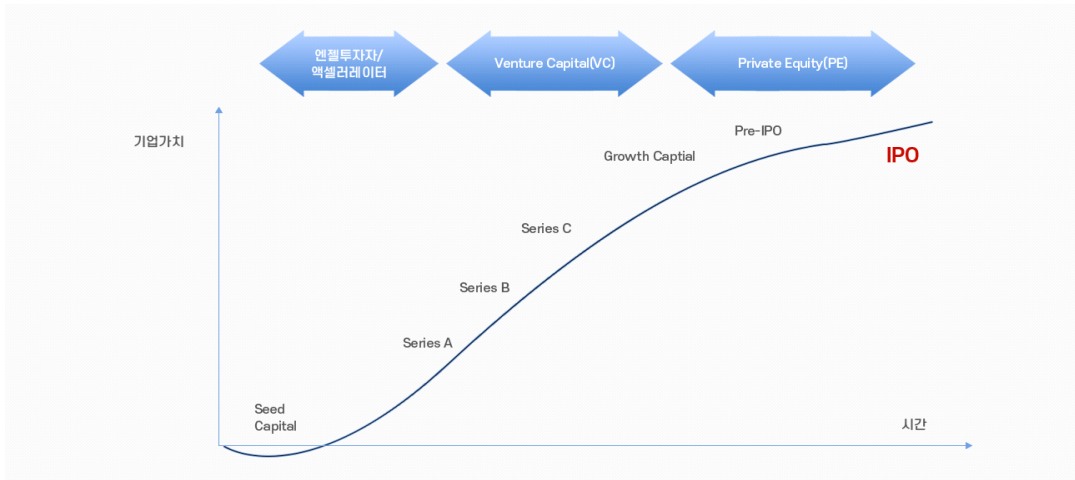
[그림 2-1] 벤처투자 구조



<자료> 벤처투자종합포털(<https://www.vcs.go.kr/web/portal/contents/M020200>)

투자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규모나 특징 등이 상이하며,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를 나타내면 [그림 2-2]와 같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은 자금 투자를 받으며 몇 차례 성장 단계를 거친다. 투자 라운드는 스타트업에서 필요한 투자에 대해 기업 성장 단계, 투자 회차, 규모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드단계→시리즈 A→시리즈 B→시리즈 C로 구분된다.

[그림 2-2]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자료> 벤처투자종합포털(<https://www.vcs.go.kr/web/portal/contents/M020200>)

먼저, 시드단계(Seed, Pre-A)는 상품 프로토타입이나 창업 아이디어를 베타 서비스로 구축하는 단계에서 진행된다. 시드 이후 기업가치가 상승했으나 일관된 수익이나 성과 지표가 없다면 Pre-A단계이다. 주요 투자자는 창업자 본인, 엔젤투자자, 지인, 액셀러레이터, 초기 전문 VC, 마이크로 VC 등이다. 초기 단계는 위험성이 높아 투자 금액이 적은 편이다. 다음으로, 시리즈 A는 출시한 시제품 혹은 베타 서비스로 일관된 수익이나 성과 지표를 얻은 스타트업에서 주로 진행되며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시제품, 베타 서비스의 정식 런칭 전후에 이루어지며 주요 투자자는 엔젤투자자, VC이다. 다음으로, 시리즈 B는 상당 수준의 사용자를 확보한 스타트업이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시점에서 진행되며, 회사는 좋은 인재 확보와 양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하며, 기술 개발과 광고에 자금을 투입한다. 주요 투자자는 VC이다. 다음으로, 시리즈 C는 새로운 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다른 회사 인수(M&A) 등을 계획하는 단계이다. 주요 투자자는 사모펀드, VC,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이다. 투자 단계가 커질수록 투자금의 규모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진다. 현재 투자 단계에서 자금의 적정성, 회사 지분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벤처투자종합포털).

2. 벤처투자자 유형

벤처투자자 유형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본이나 규모, 기타 요건, 투자 분야에 대한 제약, 세제 혜택 등에 규정상 차이가 있고, 투자 규모와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투자자 유형은 크게 전문엔젤투자자,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엔젤투자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등록된 전문투자자(「벤처투자촉진법」)를 말하며,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엔젤투자자와 액셀러레이터를 소형 VC로 분류한다면,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유한책임회사(LLC) 등은 일반 VC로 분류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모두 일반 VC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에 가깝기도 하다. 이외에도 벤처캐피탈 유형에는 일반금융권, 공공기관, 공공기관 직접투자, 일반법인 회사 등도 투자자 유형에 포함된다. 즉, 투자자금의 유형에 따라 개인이면 엔젤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고, 일반 기업이나 기관투자자면 법인,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펀드에 따라 벤처투자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벤처투자자 유형과 관할기관을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엔젤에는 개인 엔젤, 전문개인투자자, 엔젤 클럽(엔젤 네트워크)과 같이 개인 혹은 그룹으로 엔젤 투자를 하거나,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그룹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포함된다(이택경, 2021). 대체로 개인 판단에 따라 투자가 결정되지만, 엔젤 클럽은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소형 VC는 일반 VC와 비교시 작은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창업-벤처 전문 PEF 운용사가 이에 속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일종의 소형 VC이며, 기술지주회사는 투자에 있어 보다 유연한 투자자 유형인 창업기획자가 되기도 한다. 창업-벤처 전문 PEF 운용사는 일반 VC나 소형 VC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일반 VC에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LLC), 해외펀드 운용사가 속한다.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보다 최소한 자본금 요건이 더 높으며 규제 사항에는 차이가 있다. 신기사 모두가 일반 VC의 역할을 하진 않지

만, 상당수가 스타트업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는 일반 금융기관에 가깝다. 일반 금융권은 모험자본 성격이 약해서 스타트업이 주 투자대상은 아니다(이택경, 2021). 스타트업에 투자한 경험이 많은 기관은 VC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를 진행하기도 하나 다른 곳은 투자 의사 결정 과정, 투자 기준 등 운용 구조가 일반 VC와는 다르며 더 빠른 투자금 회수를 원하기도 한다. 일반 금융권에 속하는 경영참여 PEF(사모펀드)는 주로 일반 기업이나 크게 성장한 스타트업에 한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는 편이다. 공공기관의 직접 투자는 한국벤처투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벤처투자의 주 업무는 한국모태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이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출에 대한 보증이 주 업무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법인이 펀드 결성을 대체할 목적을 가지고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 VC와 큰 차이가 없는 편이다. 기업 중에서 전략적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 일반 VC와 비슷한 투자 의사결정과정, 투자 기준을 갖는다. 하지만 스타트업 투자 경험이 부족한 일반 기업은 일반 VC와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VC가 먼저 투자를 결정하고 리드해야 공동 투자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표 2-2] 벤처투자자 유형 및 관할 기관

조직	분류	투자 규모	투자자 유형	관할 기관
개인	엔젤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투자금이 큰 편임	개인 엔젤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개인투자자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금융위원회
조직	소형 VC		엔젤 클럽(엔젤 네트워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교육부
	일반 VC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부
			유한책임회사(LLC)	중소벤처기업부
			해외펀드 운용사	국적에 따른 관할 국가 기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금융위원회
			기타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캐피탈, 보험사)	금융위원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사(경영참여 PEF운용사)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직접 투자	한국벤처투자(KVIC)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일반 법인	일반 주식회사	(별도로 없음)		

〈자료〉 이택경(2021)

다음으로, 투자자금 유형은 ICO(Initial Coin Offering)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 가지로 나뉜다. 투자 자금 유형 및 투자 계약 주체별 사례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투자 자금 유형 및 투자 계약 주체별 사례

투자 자금 유형	투자 계약 주체	사례
개인	개인	· 개인 엔젤 투자 · 엔젤 클럽의 개인별 투자 ·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법인	일반 기업 기관투자자	· 펀드 결성 대신 법인을 설립해 투자 · 자기자본 투자
펀드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펀드	· 펀드(투자조합/합자회사) 투자

〈자료〉 이택경(2021)

먼저, 투자 자금 유형과 투자 계약 주체가 개인이면 개인 엔젤 투자, 엔젤 클럽의 개인별 투자,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투자 자금 유형이 법인이고 투자 계약 주체가 일반 기업, 기관투자자이면 펀드 결성 대신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거나 자기자본 투자 사례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투자 자금 유형이 펀드이고, 투자 계약 주체가 기관투자자가 결성한 펀드인 경우에는 펀드(투자조합/합자회사) 투자가 포함된다.

제2절 벤처투자 특징과 효과

1. 벤처투자 특징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고위험, 고수익(High-risk, High-return)의 형태로 투자기관이나 투자자가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Fried & Hisrich, 1994; Tybejee & Bruno, 19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은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 투자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투자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소수의 투자에서 거둔 성과가 다른 실패한 투자에서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초기 투자에 비해 10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Kenny, 2000). 벤처캐피탈은 벤처기업에 초기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전략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업의 경영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IPO나 M&A를 지원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세경·한경호, 2014).

1) 벤처투자 의사결정 요인

벤처캐피탈의 투자 의사결정은 창업팀, 시장 제품과 재무적 특성에 관한 기준이 사용되며(Wells, 1974), 시장매력도와 제품차별화, 경영 능력, 환경적 위협 및 현금화 가능성에 영향을 받고(Tyebjee & Bruno, 1984), 재무, 제품 및 시장, 전략적 경쟁 자금, 역량, 경영진, 거래 요인 등(Muzyka et al, 1996)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경영진 및 고용인의 자질, 마케팅 능력, 시장변화 대응력, 경쟁, 상황, 기술력, 제품 차별성에 영향을 받고(구경철 외, 2008; 구중희 외, 2019), 다른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능력, 잠재적 수익률, 시장 상황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차명수, 2009; 구중희 외, 2019). 또한 엔젤 투자는 제품, 시장성, 기업가의 특성, 재무사항, 그 밖에 조직 경험 및 구성, 기술성, 투자자의 역할 등이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다(Maxwell et al, 2011). 액셀러레이터가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는 창업가(팀)의 기업가적 특성, 창업가(팀)의 전문성, 성공 시의 잠재적 수익률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한주형·황보윤, 2020). 벤처투자 의사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표 2-4] 벤처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연구자	대상 및 방법	투자 결정요인
Tyebjee & Bruno(1984)	VC 46명, 전화 및 설문	경력관리능력, 제품의 차별도, 환경변화 저항력, 시장매력도, 현금화 가능성
Zacharakis & Meyer(2000)	VC 53명, 의사결정 실험	경력관리능력, 제품의 차별도, 환경변화 저항력, 시장매력도, 현금화 가능성
Monika & Sharma(2015)	VC 108명, 설문	창업자 특성, 재무적 사항, 제품/서비스의 특성
MacMillan et al.(1985)	VC 102명, 설문	창업가 특성, 창업자 경험, 제품/서비스 특성, 시장 특성, 재무 상황, 벤처팀
Muzyka et al.(1996)	VC 31명, 인터뷰, 설문	경영진 팀, 역량, 제품/시장, 재무, 전략적 경쟁자금, 거래 요인
반성식 외(2002)	VC 89명, 설문	기업가의 시장 정통성, 창업 경험, 소유권 보호, 리더십 능력, 시장규모, 시장 성장성, 경쟁자 수, 경쟁 강도 등 미국과 비교 분석
반성식·송경모 (2004)	VC 53명, 설문	8개 기준의 의사결정 실험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성공 가능성 실증분석
구경철 외(2008)	VC 20명, 설문	(상위) 성장성, 수익성 (세부) 경영진과 고용인의 능력, 마케팅 능력, 시장변화 대응력, 경쟁상황, 기술력, 제품 차별성
차명수(2009)	VC 32명, 설문	의사결정 기준에서 가중치가 부여된 기준은 시장 상황, 창업자(팀)의 능력, 잠재적 수익률 적용
윤영숙·황보윤 (2014)	전문엔젤 15명, 설문	기업가적 특성 기준 하위요인 10가지
조세근(2019)	CVC 20명, 설문	상위계층인 창업가(팀), 제품·서비스, 재무, 시장, 네트워크 5개 기준 하위요인 23개 분석
허주연(2020)	AC 55명, 설문	상위레벨인 제품/서비스, 내부인력, 시장/고객, 재무 및 전략, 투자자 5개 기준 하위레벨 26개 분석
한주형·황보윤 (2020)	AC 43명, 설문, 인터뷰	창업가(팀)의 기업가적 특성, 창업가(팀)의 전문성, 성공 시 잠재적 수익률
Seong & Kim (2021)	VC 15명, 창업전문가 15명 설문	상위계층인 창업가(팀) 특성, 제품/서비스 특성, 재무적 특성 4개 기준 9개 평가항목 분석

〈자료〉 고병기 외(2022)를 기초로 보완하였음.

2) 국내 벤처투자가 저조한 원인

해외 벤처캐피탈에 비해 국내 기업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법

상 대기업은 금융지주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으면 벤처캐피탈을 운영할 수 없고, 대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신설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금지 규정에 따라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사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광용 외, 2019).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반대될 뿐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다. 물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금산분리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 규제에 대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이광용 외, 2019). 엔젤투자자도 초기 단계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계발 단계거나 시장 진입 초기 단계는 매출이 없고, 기업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윤영숙·황보윤, 2014).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가능 대상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과 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제한된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단독투자보다 투자의 전문성, 규모의 경제,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리스크 완화 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김승찬·김홍근, 2019). 기업벤처캐피탈(CVC)은 기업이 외부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을 확보하는 개방형 혁신의 수단으로, 상장 전 벤처기업에 투자를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강신형·황성태, 2018). 이는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김주성·홍다혜, 2013; 강신형·황성태, 2018). 기업은 기업벤처캐피탈을 이용해 벤처기업의 기술 지식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권한과 불확실성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옵션을 확보할 수 있다(강신형·황성태, 20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은 2020년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 제도를 통합해 벤처투자를 단순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기적으로 대출에서 투자로의 금융 공급 변화, 신성장산업 발굴 필요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위축 및 급성장에 대한 조정으로 일시적 둔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정책, 산업, 금융의 니즈로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조봉현, 2020). 아직 벤처기업의 민간 벤처금융 활용도는 낮은 편이다. 국내에는 33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있지만 이

중 민간의 1.9%만이 민간 벤처금융 유치에 성공하였다(이지언, 2018). 하지만 도입되는 투자목적회사(SPC) 등의 투자방식에 사모펀드(PEF)나 증권사 등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벤처투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벤처자금 공급자 사이에 경쟁을 심화해 장기적으로 벤처캐피탈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나수미, 2020).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서 핵심적 요소는 민간 주도이다. 벤처기업 투자 결정에 민간의 결정을 적극 수용하고, 정부는 민간의 결정에 따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벤처기업의 규모가 커지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규모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대부분 중·소형사이므로 대형 투자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 벤처캐피탈의 레버리지 확대, IPO 추진 등 대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벤처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 공급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지언, 2018).

2. 벤처투자 효과

벤처캐피탈은 주식, 전환사채, 프로젝트,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기타 형태로 투자하고 투자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다. 대표적인 수단은 코스닥 상장이다(김정훈·박성환, 2013). 벤처캐피탈은 투자를 받는 기업에 기술지문과 같은 경영지원 활동과 감시 및 통제와 같은 모니터링 역할을 수행하여 기술혁신 등 성장에 도움을 준다(Brav & Gompers, 1997).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설립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상장일 초과 수익률에서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이 각각 7.1%와 11.9%로 차이가 있었고(Magginson & Weiss, 1991), 실패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실패에 대해 포용성이 낮은 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을수록 혁신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Tian & Wang, 2014). 또한 명성이 높은 벤처캐피탈 지원기업이 명성이 낮은 벤처캐피탈 지원기업보다 상장 첫날 단기 수입이 각각 10.3%와 15.4%로 차이가 났다(Lerner, 1994). 기업벤처캐피탈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독립벤처캐피탈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산업 지식 획득에 유리하고, 기업벤처캐피탈이 독립벤처캐피탈에 비해 실패에 보다 너그

렵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혁신적인 기술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Chemmanur et al, 2014). 2007년에서 2010년까지 한국의 벤처 투자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벤처캐피탈 투자 창업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상장 소요시간이 짧고, 상장 직전 재무적 성과가 양호하게 나타났다(김정훈 & 박성환, 2013).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기업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 조달은 벤처기업의 생존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Shrader & Simon, 1997).

한국의 산업환경은 4차산업으로 변화를 진행하던 산업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디지털 등으로 사업모델이 전환되고 투자 확대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하는 방식 및 채용 절차 등 기업경영의 혁신과 체질 개선까지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비와 투자 형태도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래 불확실성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위축되며 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고용 창출 및 성장 효과가 높은 혁신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조봉현, 2020).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할 및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에 자금 지원, 성장 지원, IPO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이광용 외, 2019). 국내 정책펀드는 크게 모태펀드(2005.6.~)와 성장사다리펀드(2013.8.~)로 나뉜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재간접 펀드(Fund of funds)라는 것인데, 이는 자산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분산투자로 효율적인 관리와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 보수와 제반 비용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조봉현, 2020).

앞서 살펴본 벤처투자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은 투자를 받지 못한 기업보다 설립이 빠르며 혁신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금을 투자받은 기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유가 생겨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준다. 이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서 벤처기업은 높은 고용 창출과 성장효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벤처투자는 사회적 관심과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벤처투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발전 방향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3장 국내 벤처투자 현황

제1절 전체 현황

제2절 산업별 현황

제3절 지역별 현황

제4절 벤처투자 관련 정책 현황

제5절 소결

제절 전체 현황

현재 국내 산업이 전반적으로 저성장 시류인 상황에서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한 벤처투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벤처기업확인제도에 의해 1998년 2,042개의 벤처기업을 시작으로 2022년에 35,123개로 확대되었고 벤처투자금액은 총액 6조 7,640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벤처투자기업과 출자금액도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요 벤처강국 대비 여전히 작은 규모이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도 낮은 편이다. 벤처기업 수는 증가하지만 투자 유치 실적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주요 벤처강국 대비 정부와 공공부문 출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이지언, 2018).

본 절에서는 국내 벤처투자기업(벤처투자회사)과 이들이 운영하는 조합의 출자금액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벤처투자기업인 한국벤처투자, 지자체 주도로 설립된 경남벤처투자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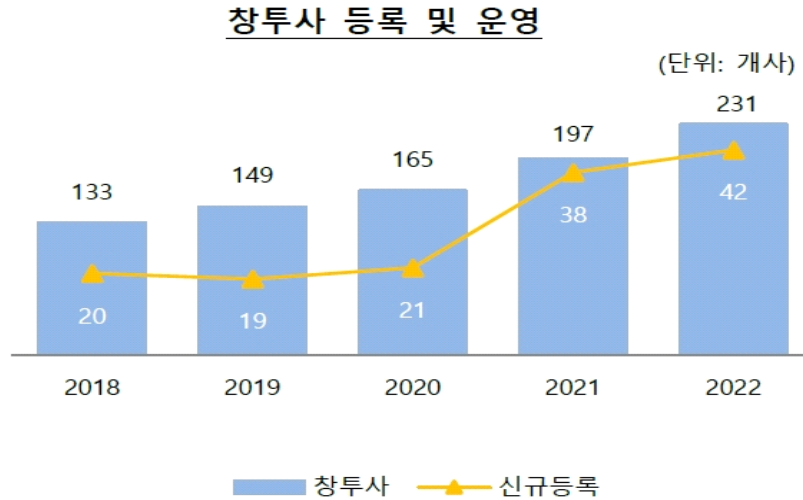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벤처투자금융 활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대책을 발표하였고, 대규모 민간자본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펀드를 도입하고, 대책에 포함된 세제 인센티브도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1. 국내 벤처투자기업 현황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벤처투자기업(창업투자기업)은 총 231개사(2022년 기준)이며, 이 중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벤처투자기업(창업투자기업)은 2018년에 133개사에서 2022년에는 231개사로 늘어났으며, 매년 신규 등록과 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벤처투자금융의 시초가 되는 한

국모태펀드의 운영사인 한국벤처투자가 대표적 벤처투자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벤처투자기업 등록 및 운영 현황은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국내 벤처투자기업 등록 및 운영 현황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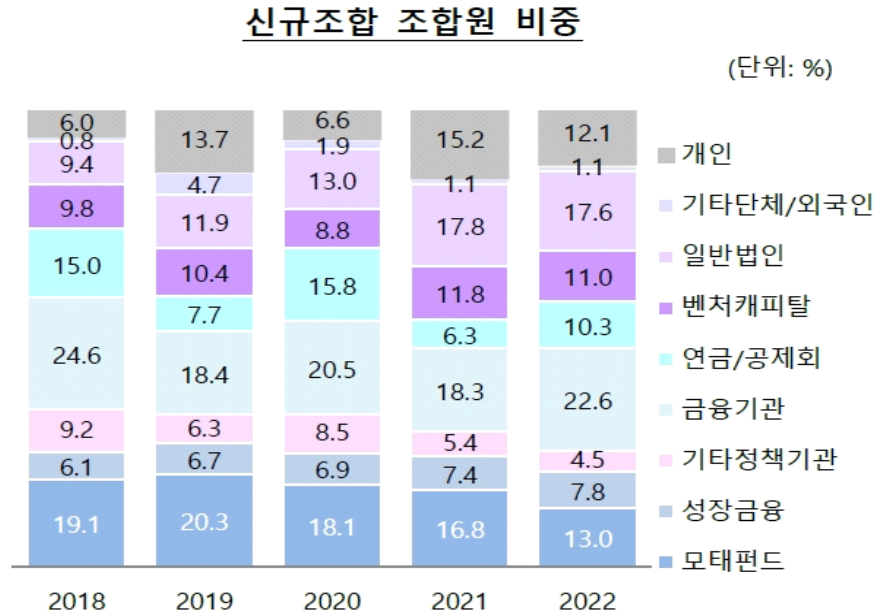
국내 벤처투자기업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금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에 신규 결성된 380개 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10조 7,286억 원이며 운영 중인 조합은 1,737개이다(한국금융, 2023). 2022년 한 해 전체 벤처투자 기업들의 총 약정금액은 51조 2,653억 원 규모이다. 매년 결성되는 조합은 2018년에 146개에서 2021년까지 404개로 확대되었고,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한 380개가 결성되었다. 2018~2022년 벤처투자금융 조합 결성 및 운영 금액을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벤처투자금융 조합결성 및 운영 금액(2018~2022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	조합 수(개)	146	170	206	404	380
	금액(억 원)	48,413	42,411	68,864	94,978	107,286
운영	조합 수(개)	805	920	1,078	1,431	1,737
	금액(억 원)	241,360	273,926	332,855	415,794	512,653

신규 조합의 조합원 구성비는 2022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22.6%로 가장 높은 편이며, 일반 법인은 17.6%, 한국모태펀드가 13.0%, 개인투자자 전체가 12.1%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최근 5년을 보더라도 금융기관과 모태펀드가 해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및 기타단체·외국인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의 출자 금액을 구성하는 상당 부분이 공적자금인 것으로 보인다. 2018~2022년 신규 조합 조합원 비중은 아래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신규조합 조합원 비중(2018~2022년)



벤처투자기업 중에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투자 잔액 상위 20개 투자사는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가 투자 잔액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이며, 설립 이래 약 60개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당사는 2017년 국내 최초로 벤처캐피탈 총관리자산(AUM) 1조 원을 돌파하며 총관리자산 1조 원 시대를 연 대표적인 기업이다. 주요 투자 분야인 바이오·헬스케어에서 높은 성과를 보여왔고, 언택트, 스마트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벤처투자기업 투자 잔액

상위 20개 투자사와 투자 잔액, 투자 금액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벤처투자기업 투자 잔액 상위 20개 투자사

순위	회사명	투자 잔액(억 원)	투자 금액(억 원)
		2021년 12월 말	2021.1.1~2021.12.31
1	한국투자파트너스	11,858	3,179
2	소프트뱅크벤처스	7,277	1,652
3	케이비인베스트먼트	6,956	2,702
4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6,549	2,588
5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5,302	1,229
6	KTB네트워크	5,275	1,636
7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4,889	1,718
8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4,697	1,025
9	미래에셋벤처투자	4,628	2,254
10	LB인베스트먼트	4,611	1,314
11	새한창업투자	4,389	3,738
12	디에스씨인베스트먼트	4,307	2,227
13	인터베스트	4,282	870
14	스톤브릿지벤처스	3,458	1,119
15	컴퍼니케이파트너스	3,130	1,117
16	프리미어파트너스	3,098	1,233
17	티에스인베스트먼트	3,086	653
18	에스비인베스트먼트	2,992	1,044
19	스틱벤처스	2,718	831
20	신한벤처투자	2,690	1,019

<자료> 스타트업레시피, 2022 대한민국 벤처캐피탈 현황 리포트, 2022.

2. 주요 벤처투자기업 현황

한국벤처투자와 경남벤처투자, 투자청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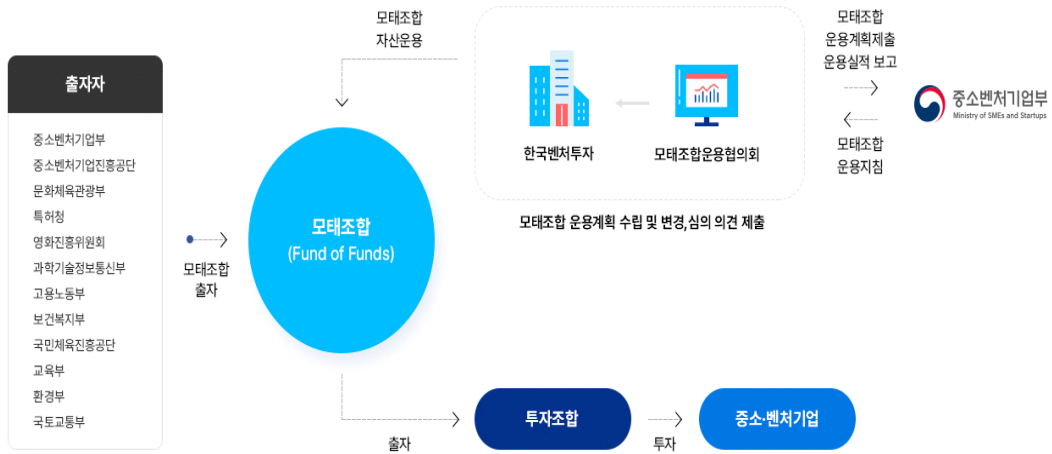
1)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에서 조성한 벤처투자금융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국모태펀드는 정부기관(특허청,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영화

진흥위원회, 국토교통부)이 투자 재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투자 의사 결정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정부 기관들이 출자한 벤처금융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모태조합 운용지침을 제공하며 한국벤처투자가 벤처금융을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이것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모태펀드는 2005년에 결성되었고, 운용기간은 2035년까지 30년이다.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운용구조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운용구조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주 출자 분야는 중진계정(창업 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하는 펀드), 엔젤계정, 혁신모험계정(창업초기기업, 혁신성장기업, 농수산벤처기업 투자펀드), 소재부품장비계정, 청년계정(청년창업 기업 투자펀드) 등 총 19개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모태펀드의 주 출자 분야는 [표 3-3]과 같다.

[표 3-3] 한국모태펀드 주 출자 분야

출자 분야	내용
중진계정	창업 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에 투자하는 펀드
청년계정	청년창업기업 투자펀드
혁신모험계정	창업초기기업·혁신성장기업·농수산벤처기업 투자펀드
소재부품장비계정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펀드
엔젤계정	엔젤매칭투자조합 등 엔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지방계정	지방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문화계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관광계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진흥법상 스포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특허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과기계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연구개발특구계정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투자 펀드
보건계정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환경계정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 관련 기업 투자 펀드
해양계정	해양산업 관련 기업 투자 펀드
도시재생계정	구도심 도시재생을 목표로 관련 기업 투자 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국토교통혁신산업 기업 투자 펀드
교육계정	대학창업, 학생창업 기업 투자 펀드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한국벤처투자의 조직도는 [그림 3-4]와 같다.

[그림 3-4] 한국벤처투자 조직도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2) 경남벤처투자

경남벤처투자는 2019년 11월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회사로 등록하고 12월에 자본금 47억 원으로 경남 제1호 벤처투자회사로 개소하였다. 지방 벤처투자 자금 비중이 국내 전체 대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약 8% 수준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기업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이것이 지방 일자리와 인재 부족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벤처투자를 설립하였다.

경남벤처투자는 민·관·금 협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벤처투자기업이다. 개소 당시 출자자는 대한제강(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은행, 농협은행, 삼천산업(주), 센트랄(주), 범한산업(주), 정영화(대호테크 대표),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참여하였다.

설립 첫해인 2019년에 총 200억 원(한국모태펀드 120억 원, 경상남도과 지역 금융 기관 80억 원)의 펀드를 구성하였고, 설립 2년 차인 2020년에 176억 원 규모의 2호 펀드를 결성하였다. 2020년의 경남벤처투자의 주요 투자 분야는 경남 4대 주력산업(지능형 기계, 항공우주, 나노융합소재, 항노화바이오)과 강소연구개발특구 업종(소재·부품·장비, 항공우주 부품·소재, ICT 융복합 부품·소재, 의료기기)이다.¹⁾ 설립 3년 차인 2021년에는 한국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되어 200억 원 규모의 3호 펀드를 결성하였다.

2023년에는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 사업(벤처캐피탈 위탁운용사(GP) 6곳 선정, 동남권, 대구·제주·광주, 전북·강원 3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2개의 GP 선정함)에 경남벤처투자가 선정되었다. GP로 선정된 운용사들은 2023년 7월까지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별 펀드 최소 결성 금액은 동남권은 400억 원(모태펀드에서 280억 원 출자), 대구·제주·광주권은 426억 원(모태펀드 298억 원 출자), 전북·강원권은 310억 원(모태펀드 196억 원 출자) 규모이다. 전체 금액 중에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부분은 약 70% 수준이다.²⁾ 한국모태펀드가 선정하는 GP 경쟁률은 최고 5:1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위탁운영사는 아래 [표 3-4]와 같다.

[표 3-4] 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위탁 운영사 6곳 선정 결과 (2023년7)

출자 분야	결성예정액 (억 원)	출자요청액 (억 원)	회사명
동남권 지역혁신	400	280	·경남벤처투자(280억 중 200억 출자)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대구·제주·광주 지역혁신	426	298	·넥스트지인베스트먼트 ·대덕벤처파트너스/에스케이증권
전북·강원 지역혁신	310	196	·소풍벤처스 ·안다아시아벤처스

경남벤처투자는 개소 직후인 2020년 경남 김해 소재 콘텐츠 개발업체에 첫 번째로

1) 아세안문화경제미디어, 경남 유일 창투사 경남벤처투자, 250억 중소벤처창업 펀드 결성, 2020.03.23.

2) 대체투자, 바늘구멍 경쟁 뚫은 지역혁신펀드 GP 6곳은, 2023.04.13.

80억 원을 투자하였고, 2022년에는 교통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원 소재 연구소기업에도 투자하였다. 이후 2022년 155억 원을 투자해 22개의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이 중에서 약 120억 원은 경남과 동남권 소재 기업들에 투자하여 지역 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경남벤처투자 연혁과 내용은 아래 [표 3-5]와 같다.

[표 3-5] 경남벤처투자 연혁 및 펀드 운용 현황 (2022년 기준)

연혁	내용
2019년 9월	경남벤처투자 설립
2019년 11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등록
2019년 12월	경남리버스이노베이션투자조합(200억 원) 운용 등록
2021년 12월	스마트뉴딜 혁신산업투자조합(176억 원) 운용 등록
2022년 2월	한국모태펀드동남권 지역뉴딜벤처펀드(200억 원) 선정
2022년 5월	경남유니콘투자조합 1호(40억 원) 운용 등록
2022년 7월	한국모태펀드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61억 원) 선정
2023년 4월	한국모태펀드 지역혁신벤처 펀드(200억 원) 선정
운영 규모	416억 원
투자금액	185억 원
경남 소재 기업투자금액 (전체 금액 대비 %)	137억 원 (74.3%)
경남 소재 기업 (전체 투자기업 대비 %)	13개사 (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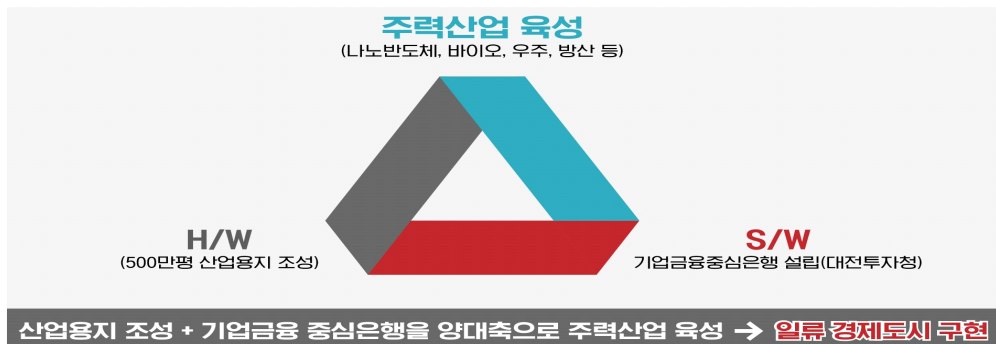
[참고] 국내 투자유치 관련 기관

- 대전투자청

대전시는 대전투자청을 먼저 설립하고, 향후 기업금융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대전투자청은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기술금융회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신기술금융회사(신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에 투자 또는 융자해주는 금융회사)는 2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금융위원회 등록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전시는 대전투자청 설립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출자하고, 시민, 기업,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민간자금을 추가 조달하여 2023년 대전투자청 개청까지 설립자본금 7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전시 출자금은 일반회계 예산 없이 기존 펀드 회수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추후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연차적으로 5,000억 원 이상 공공펀드를 결성하고, 결성액의 60% 이상을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기술, 방위산업 등 대전시 주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투자청 역할 개념도






- 서울투자청

서울투자청(인베스트서울, Invest Seoul)은 서울시가 설립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기관으로 2022년 2월 출범하였다.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며, ‘아시아 금융 중심 도시’이자 ‘글로벌 금융허브 서울’을 위해 만든 투자유치 전담기구(IPA)이다. 서울투자청은 서울이 아시아 금융 중심 도시로서 아시아 소재 글로벌 금융기업 유치, 핀테크·바이오 등 서울의 핵심 산업 글로벌 기업 유치, 중동 중심 자본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서울투자청은 마케팅 활동, 홍보를 통해 서울의 투자환경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투자자와 글로벌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투자 탐색부터 후속 투자까지 전 과정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서울 소재 투자 유망기업들과 해외투자자를 발굴하여 서울에 글로벌자본 유치를 지원한다.

서울투자청은 203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연 300억 달러(약 39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2022년까지 3613억 원을 투자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장기차관의 3가지 유형이 있다. 요건으로는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장 총액 1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투자청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금 지원, 보조금, 조세 감면, 입주공간 지원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투자청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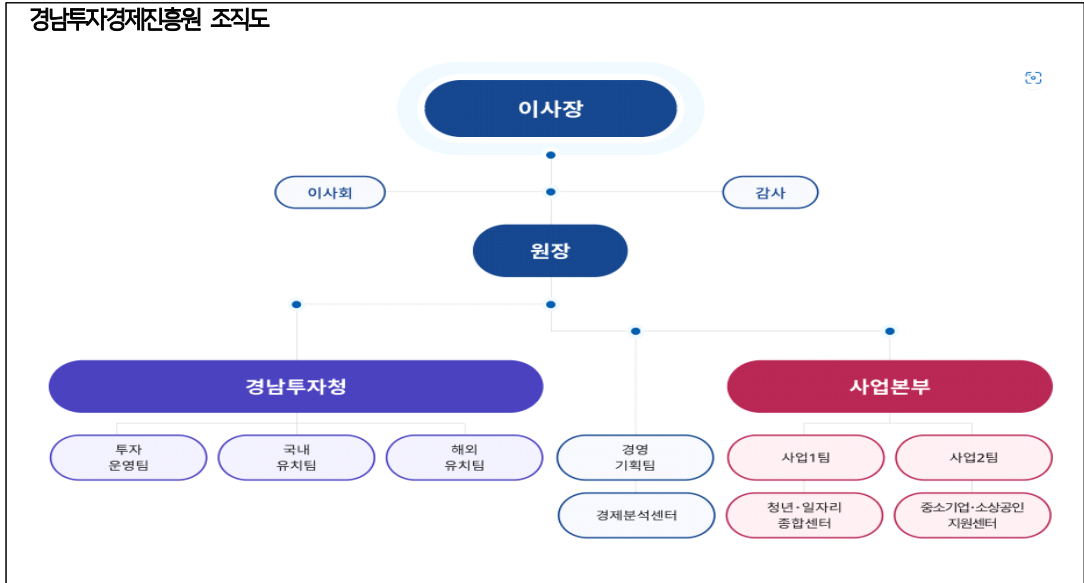
<p>Vision</p>  <p>서울을 글로벌 기업과 인재를 활약하는 경제허브 혁신도시로 조성</p>	<p>Mission</p>  <p>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의 글로벌 성장 전 과정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p>	<p>Core Values</p>  <p>- Comprehensive - Customized - Connected</p>
--	--	---

- 경남투자청

경남투자청은 2023년 6월 5일 경상남도 산하기관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기관으로 개청됐다. 투자운영팀, 국내유치팀, 해외유치팀 총 3팀 12명(‘23.6.5.기준)의 민간 투자유치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다. 경남투자청은 전국에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된 투자유치 전문기관으로 민선 8기 도정 출범과 함께 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투자유치 기능을 추가해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경남투자청은 국내외 기업이 경남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투자 기업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경남투자청은 기업과 투자를 경남에 끌어와 투자 유치와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경남투자청 역할 개념도

 <p>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MP 운영 시행 • 국내·외 투자자 실시간 응대 시스템 구축(AI챗봇, 외국어 동시 지원) 	 <p>홍보 마케팅 전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 • 국내 유관기관·투자 유망 기업 대상 설명회, 글로벌 경제전문지 연계 	 <p>투자 유망기업 DB구축·I R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동력사업, 경남 특화산업 타겟·업종별, 권역별 DB구축 • 국내·외 투자 유관기관 업무 협력 강화, 소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p>사후 서비스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사항 청취 → 행정지원 → 재·확장 투자 유도
---	---	--	---



3. 국내 벤처투자 펀드 현황

국내 벤처투자금융은 2000년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 역대 최대 금액이 벤처투자 분야에 유입되었다. 지난 2000년에 약 2조 원대 규모였던 벤처투자금액은 IT 버블 붕괴로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벤처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지원정책이 성장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창업 초기 기업을 위한 벤처투자금액의 비중이 낮은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벤처투자금융의 구성은 정책자금의 비중이 매우 크다. 대표적인 정책자금인 한국모태펀드는 민간에서 결성하였고, 여기에 정부 출자기관이 각 기관의 목적별로 매칭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2005년 한국모태펀드가 만들어질 당시 1,700억 원 수준에서 시작하여 2022년 말 당시 8조 2,153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³⁾

3)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공시자료

1) 국내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국내 벤처투자는 2022년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2021년 대비 11.9% 감소하여 전체 6조 7,640억 원 규모이다. 하지만 같은 해 미국이 30.9% 하락하였고, 이스라엘 역시 40.7% 하락한 것에 비교하면 양호한 상황이다. 국내 벤처투자 규모는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던 2021년에 이어 2022년이 두 번째 규모인 셈이다.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은 [표 3-6]과 같다.

[표 3-6] 최근 5년간 벤처투자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억 원)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전년 대비	증감액	-	+8,528	+268	+33,757	△9,162
	증감률(%)	-	+24.9	+0.6	+78.4	△11.9
투자 건수		3,150	3,713	4,231	5,559	5,286
피투자기업 수		1,399	1,608	2,130	2,438	2,47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2) 국내 최근 5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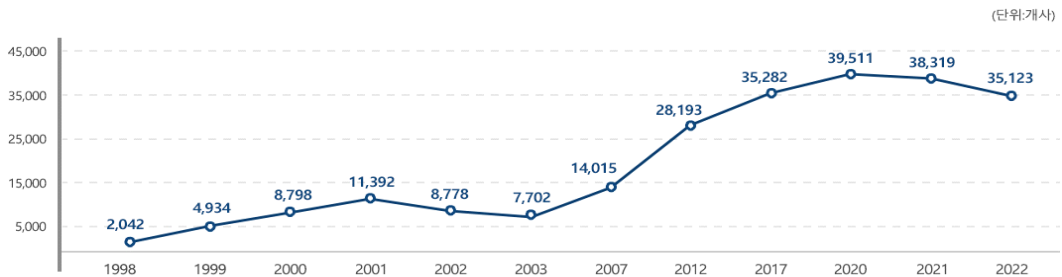
벤처투자 동향을 분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 2분기까지는 활발했으나 3분기부터는 다시 투자가 위축되는 추세이다. 1분기 투자는 2조 2,214억 원으로 2021년 동분기 대비 68.5%(9,027억 원) 증가했다. 2분기는 1.4%(262억 원) 늘어난 1조 9,315억 원으로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3분기 벤처투자는 1조 2,843억 원으로 2021년 동분기 대비 38.6%(8,070억 원) 줄었고, 4분기도 43.9%(1조 381억 원) 감소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이러한 양상은 상반기까지는 시장 경색 이전에 검토하던 투자 건들이 집행되었지만, 3분기에 들어서는 고물가·고금리가 벤처투자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벤처투자는 2022년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로 2021년 대비 11.9% 감소하여 전체 6조 7,640억 원 규모이다. 최근 5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은 [표 3-7]과 같다.

[표 3-7] 최근 5년간 분기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1분기	6,377	7,789	7,732	13,187	22,214	+9,027	+68.5
2분기	9,950	12,154	8,821	19,053	19,315	+262	+1.4
3분기	9,422	11,246	12,371	20,913	12,843	△8,070	△38.6
4분기	8,500	11,588	14,121	23,649	13,268	△10,381	△43.9
합 계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9,162	△11.9

3)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사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22년 현재 35,123개사가 존재한다.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은 [표 3-8]과 같다.



[표 3-8] 연도별 벤처기업 현황

구분	1998	1999	...	2007	...	2020	2021	2022
업체 수 (개사)	2,042	4,934		14,015		39,511	38,319	35,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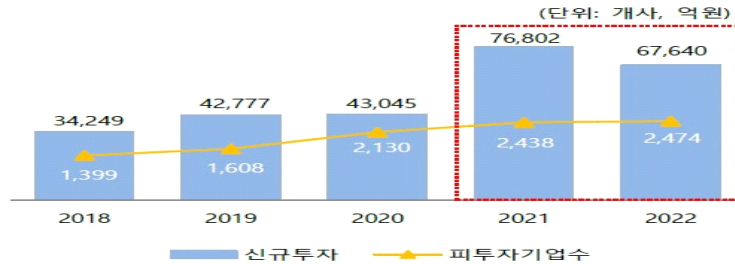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증가세와 더불어 벤처투자기업과 벤처투자금융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2절 산업별 현황

1.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

국내 벤처투자기업이 2022년에 신규 투자한 총액은 6조 7,640억 원이며, 벤처투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2,474개사이다. 신규 투자가 2021년 대비 약 9,000억 원 감소했으나, 투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체 수는 유사하며, 2020년 대비 신규 투자 대비 2조 4,415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벤처투자기업 신규 투자 현황은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벤처투자기업 신규 투자 현황(2022년 기준)



2022년에 이루어진 신규 투자 총액 6조 7,640억 원 가운데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 3개 업종이 전체 벤처투자 비중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ICT 서비스 산업의 벤처투자 금액은 2조 3,518억 원(34.8%)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되었으며, 유통·서비스는 1조 3,126억 원 규모, 바이오·의료 산업은 1조 1,058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상장된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⁴⁾ 기술특례상장 심사가 강화됨⁵⁾ 등으로 2021년 대비 34.1%(5,712억 원) 줄어들었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3.2%(약 765억 원)가 감소한 규모로 2022년의 시장 경기가 2021년 대비 좋지 않은 데

4) KRX 헬스케어 지수: ('20) 5,517 → ('21) 3,721(△32.6%) → ('22) 2,634(△29.2%)

5) 바이오 기술특례상장건: ('18) 15 → ('19) 14 → ('20) 17 → ('21) 9 → ('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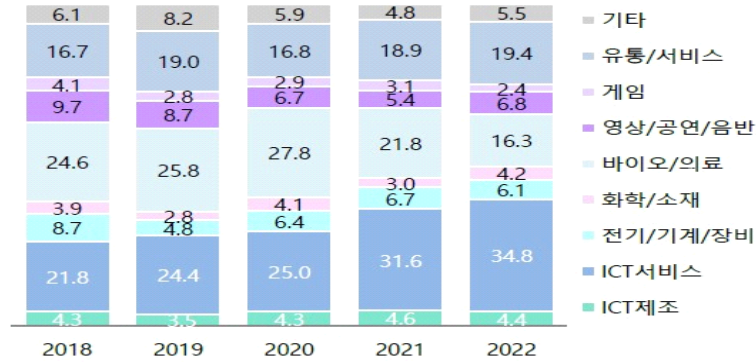
서 비롯됐다고 본다.

한편 영상·공연·음반 산업의 벤처투자 규모는 4,604억 원이며 2021년 대비 10.6% (약 443억) 증가한 수치이다. K-팝과 K-드라마 등의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통되어 엔터테인먼트·영상 콘텐츠 주가 선방⁶⁾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영화 관람객 수가 다시 회복⁷⁾한 것이 원동력이 됐다고 본다. 최근 5년간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은 [표 3-9]와 같다.

6) 코스닥 오락·문화 지수: ('20) 542 → ('21) 811(+49.6%) → ('22) 646(△20.3%)

7) 국내 영화관 관람객 수(백만 명): ('18) 216 → ('19) 227 → ('20) 60 → ('21) 61 → ('22) 113

[표 3-9] 최근 5년간 산업별 벤처투자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ICT 서비스	금액	7,468	10,446	10,764	24,283	23,518	△765	△3.2
	비중	21.8	24.4	25.0	31.6	34.8	+3.2	-
유통 서비스	금액	5,725	8,145	7,242	14,548	13,126	△1,422	△9.8
	비중	16.7	19.0	16.8	19.0	19.4	+0.4	-
바이오/의료	금액	8,417	11,033	11,970	16,770	11,058	△5,712	△34.1
	비중	24.6	25.8	27.8	21.8	16.3	△5.5	-
영상/공연/음반	금액	3,321	3,703	2,902	4,161	4,604	+443	+10.6
	비중	9.7	8.7	6.7	5.4	6.8	+1.4	-
전기/기계/장비	금액	2,990	2,036	2,738	5,172	4,108	△1,064	△20.6
	비중	8.7	4.8	6.4	6.7	6.1	△0.6	-
기타	금액	2,077	3,518	2,546	3,693	3,753	+60	+1.6
	비중	6.1	8.2	5.9	4.8	5.6	+0.8	-
ICT제조	금액	1,489	1,493	1,869	3,523	2,987	△536	△15.2
	비중	4.4	3.5	4.4	4.6	4.4	△0.2	-
화학/소재	금액	1,351	1,211	1,765	2,297	2,871	+574	+25.0
	비중	3.9	2.8	4.1	3.0	4.2	+1.2	-
게임	금액	1,411	1,192	1,249	2,355	1,615	△740	△31.4
	비중	4.1	2.8	2.9	3.1	2.4	△0.7	-
합 계	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9,162	△11.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	-

2022년 업종별 투자실적 상위권 벤처투자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ICT 서비스 업종에서는 케이비인베스트먼트가 2022년 한 해 62개 벤처기업에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였고, 유통·서비스 업종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8개 벤처기업에 총 505억 원을

투자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벤처기업 18개사에 총 396억 원을 투자하였고, 영상·공연·음반 분야에서는 쏠레이파트너스가 32개 벤처기업에 총 151억 원을 투자하였다. 전기·기계·장비 분야는 포스코기술투자가 9개 벤처기업에 107억 원을 투자하였고, ICT제조 분야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7개 벤처기업에 총 75억 원을 투자하였다. 화학·소재 분야는 포스코기술투자가 4개 벤처기업에 304억 원을 지원하였고, 게임 분야는 코나벤처파트너스가 9개 벤처기업에 총 128억 원을 투자하였다. 업종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는 아래 [표 3-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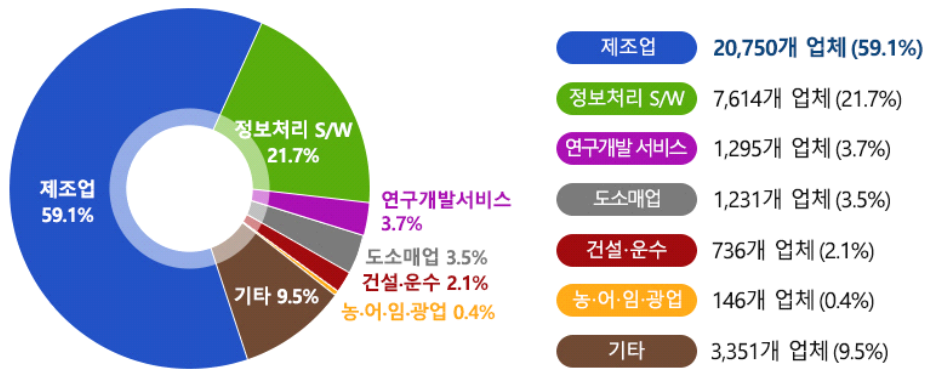
[표 3-10] 업종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2022년)

순위	업종	기업명	투자업체 수	금액(억 원)
1	ICT 서비스	케이비인베스트먼트	62	1,354
2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21	1,267
3		한국투자파트너스	39	1,153
4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6	990
5		해시드벤처스	24	888
1	유통·서비스	한국투자파트너스	18	505
2		씨엔티테크	18	24
3		한국벤처투자	16	94
4		프라이머시즌5	13	9
5		케이비인베스트먼트	12	310
1	바이오·의료	한국투자파트너스	18	396
2		컴퍼니케이파트너스	17	399
3		한국벤처투자	15	141
4		유티씨인베스트먼트	14	397
5		메디톡스벤처투자	13	125
1	영상·공연·음반	쏠레어파트너스	32	328
2		가이아벤처파트너스	28	151
3		케이씨벤처스	24	257
4		유니온투자파트너스	22	212
5		로간벤처스	18	114
1	전자·기계·장비	포스코기술투자	9	107
2		한국투자파트너스	8	280
3		인라이트벤처스	7	53
4		엘앤에스벤처캐피탈	6	57
5		케이비인베스트먼트	6	61
1	ICT제조	한국투자파트너스	7	314
2		대덕벤처파트너스	5	45
3		엘앤에스벤처캐피탈	4	40
4		케이비인베스트먼트	4	128
5		비에이파트너스	3	19
1	화학·소재	포스코기술투자	4	75
2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4	304
3		슈미트	4	78
4		코오롱인베스트먼트	4	141
5		아이스퀘어벤처스	4	60
1	게임	코나벤처파트너스	9	128
2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9	69
3		케이제이인투자파트너스	6	96
4		센트럴투자파트너스	5	74
5		한국투자파트너스	5	80

<자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 <http://diva.kvca.or.kr/div/cmn/DivDisclsMainInq>

한편 현재 영업 중인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59.1%를 차지하고 이어 정보처리 S/W가 21.7%, 연구개발 서비스업이 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업종별 벤처기업체 현황은 다음 [표 3-11]과 같다.

[표 3-11] 국내 업종별 벤처기업체 현황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운수
업체 수(개사)	20,750	7,614	1,295	736
비율(%)	59.1	21.7	3.7	2.1
구분	도소매업	농·어·임·광업	기타	계
업체 수(개사)	1,231	146	3,351	35,123
비율(%)	3.5	0.4	9.5	100

2.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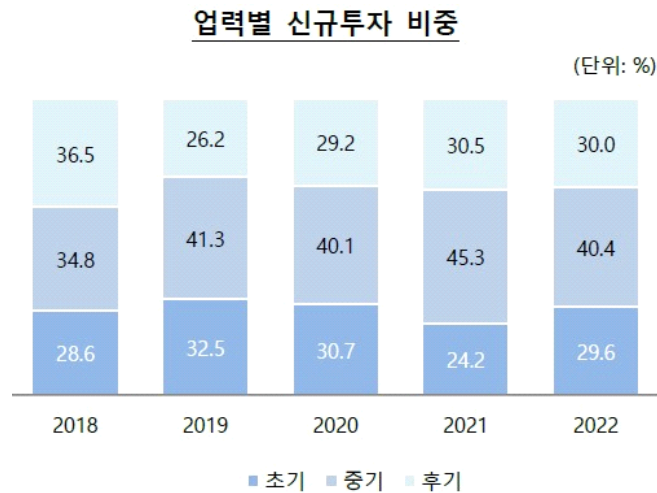
벤처기업의 업력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창업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40.4%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 후기 기업은 30%, 창업 초기 기업은 29.6%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추세는 창업 초기 기업 투자는 평균 약 28.7% 수준이며, 창업 중기 기업 투자는 평균 약 40% 수준, 창업 후기 기업 투자는 31.3% 수준이다.

2022년은 업력 3년 이하에 해당하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유일하게 증가

한 해이다. 창업 초기 기업 투자는 2021년 대비 7.8%(1,452억 원) 늘어난 2조 50억 원 규모이며, 이는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선 수치이다.

창업 중기 기업(업력 3~7년)과 창업 후기 기업(업력 7년 초과) 투자는 각각 2조 7,305억 원(전년 대비 21.6% 감소), 2조 285억 원(전년 대비 13.3% 감소) 규모이다. 이는 가격 협상 측면에서 유리하고 비교적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매력도와 관심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초기 창업 기업(3년 미만)이 15.5%를 차지하고 있으며, 7년 미만의 창업 기업이 48.4%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업력별 벤처기업 투자 비중은 다음 [표 3-12]와 같다.

[표 3-12] 업력별 벤처기업 투자 비중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초기	9,810	13,901	13,205	18,598	20,050	+1,452	+7.8
중기	11,935	17,662	17,268	34,814	27,305	△7,509	△21.6
후기	12,504	11,214	12,572	23,390	20,285	△3,105	△13.3
합계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2022년 업력별 투자 실적 상위권 벤처투자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창업 초기 기업 투자 실적 1위는 제피러스랩이며 벤처기업 4개 사에 총 1,007억 원을 투자하였다. 창업

중기 기업 투자 실적 1위는 한국투자파트너스이며 51개 벤처기업에 총 1,277억 원을 투자하였다. 창업 후기 기업 투자 실적 1위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이며 벤처기업 16개사에 총 1,263억 원을 투자하였다. 업력별 벤처투자기업들의 실적 순위는 아래 [표 3-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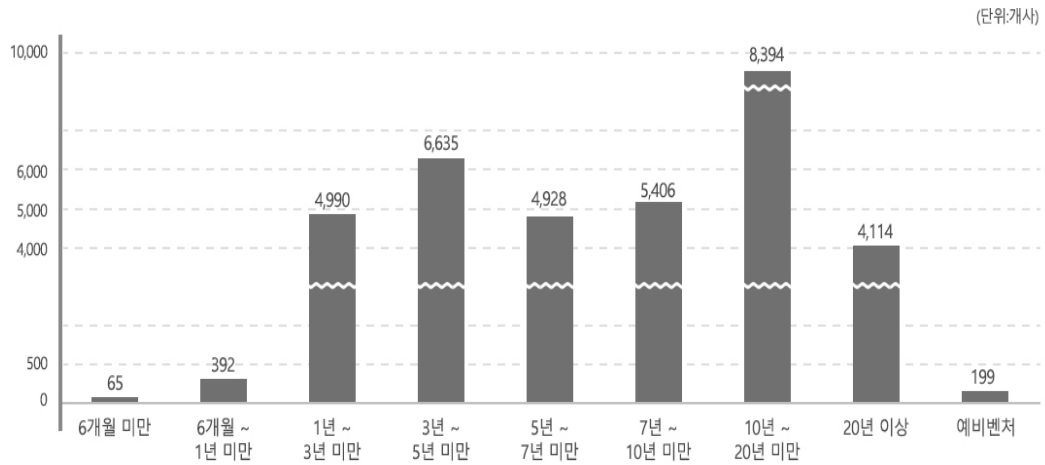
[표 3-13] 업력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순위	피투자기업 업력	벤처투자기업명	투자업체 수	금액(억 원)
1	초기	제피러스랩	4	1,007
2		한국투자파트너스	34	798
3		해시드벤처스	18	754
4		케이비인베스트먼트	46	625
5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1	542
1	중기	한국투자파트너스	51	1,277
2		케이비인베스트먼트	48	1,220
3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20	898
4		LB인베스트먼트	13	750
5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15	730
1	후기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16	1,263
2		LB인베스트먼트	10	1,064
3		한국투자파트너스	26	962
4		미래에셋벤처투자	17	882
5		케이비인베스트먼트	19	533

<자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 <http://diva.kvca.or.kr/div/cmn/DivDisclsMainInq>

한편 국내 벤처기업의 업력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현재 창업 초기 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체 수는 5,447개사(15.5%)이며, 창업 중기 기업(업력 3~7년)은 11,563개사(32.9%), 창업 후기 기업(업력 7년 초과)은 17,914개사(51%)이다. 국내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은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국내 벤처기업 업력별 현황



구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업체 수(개사)	65	392	4,990	6,635	4,928
비율(%)	0.2	1.1	14.2	18.9	14.0
구분	7~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예비벤처	합계
업체 수(개사)	5,406	8,394	4,114	199	35,123
비율(%)	15.4	23.9	11.7	0.6	100

제3절 지역별 현황

1.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⁸⁾을 살펴보면, 2022년 현재 국내 전체 6조 7,640억 원 중에서 서울에서 투자된 벤처투자액이 3조 7,445억 원으로 55.3%를 차지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광역시로서는 대전이 3,606억 원으로 5.3%, 부산이 1,370억 원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의 벤처투자 비중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다.

지방은 경기도가 11,280억 원으로 16.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경북이 1,167억 원으로 1.7%, 충남이 1,141억 원으로 약 1.7% 수준이다.

전국을 다시 구분해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4조 9,485억 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의 벤처투자금액 비중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벤처투자 펀드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부는 지방전용 펀드 4,7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을 2022년에 발표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2)⁹⁾. 지역 초기 엔젤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호남과 충청권에 지역엔젤중심지 기금을 1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하는 지방 우수 창업기업에 275억 원 규모의 직접투자를 추진한다. 그리고 비수도권의 엔젤투자가 후속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엔젤 징검다리 기금 4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모태펀드가 출자한 지역뉴딜 벤처기금을 총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다음 [표 3-15]와 같다.

⁸⁾ 중소기업부,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2023.01.29.

⁹⁾ 중소기업부,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4,700억 원 조성, 2022.02.04.

지역별 투자 실적 상위권 벤처투자업체의 2022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LB인베스트먼트가 23개 벤처기업에 총 1,718억 원을 투자하였고, 경기도는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가 10개 벤처기업에 605억 원을 투자하였다. 5대 광역시는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가 7개 벤처기업에 292억 원을 투자하였고, 지방은 한국투자파트너스가 9개 벤처기업에 408억 원을 투자하였다. 지역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는 아래 [표 3-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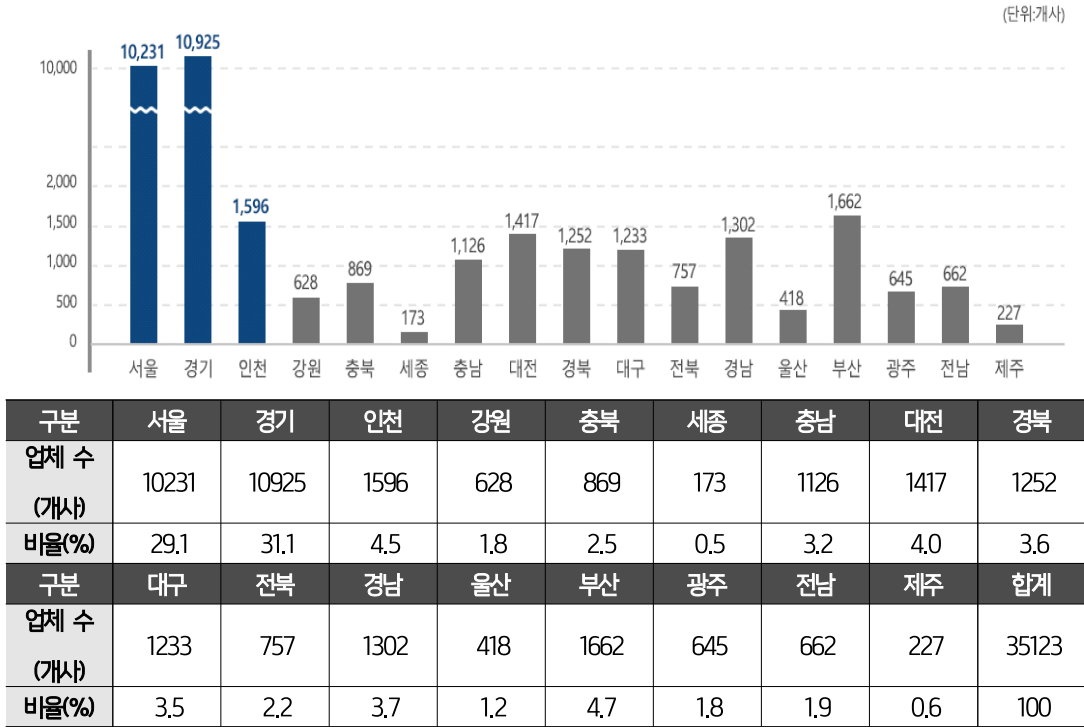
[표 3-16] 지역별 벤처투자기업 실적 순위 (2022년)

순위	지역	기업명	투자업체 수	금액(억 원)
1	서울	LB인베스트먼트	23	1,718
2		한국투자파트너스	62	1,596
3		케이비인베스트먼트	75	1,552
4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24	1,399
5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21	1,039
1	경기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10	605
2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7	403
3		인다아시아벤처스	6	380
4		한국투자파트너스	16	380
5		케이비인베스트먼트	13	372
1	5대 광역시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7	292
2		스탁벤처스	5	200
3		데일리파트너스	6	195
4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	6	190
5		스프링벤처스	1	181
1	지방	한국투자파트너스	9	408
2		스톤브릿지벤처스	8	337
3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4	313
4		키움인베스트먼트	5	232
5		메디치인베스트먼트	2	160

<자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 <http://diva.kvca.or.kr/div/cmn/DivDisclsMainInq>

벤처투자 펀드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들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소재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은 다음 [표 3-17]과 같다.

[표 3-17]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



<자료>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 22,752개사가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산이 1,662개 사로 4.7%, 대전이 1,417개 사(4.0%), 경상남도가 1,302개 사(3.7%), 경상북도가 1,252개사(3.6%) 순으로 나타났다.

제4절 벤처투자 관련 정책 현황

기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과 「벤처기업법」 은 상호 준용 규정이 많아 법체계가 복잡하여 투자 대상을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유동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나수미, 2020). 따라서 민간 위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서 규제가 적고 단순한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벤처투자법」 은 2020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벤처투자법의 제정 목표는 다음 [표 3-1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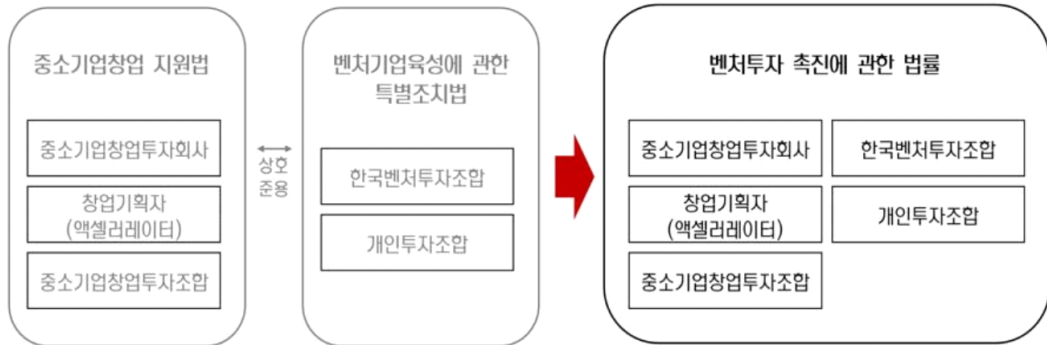
[표 3-18] 벤처투자법 제정 목표

「벤처투자법」 제정 목표
①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민간중심 투자생태계 조성 ② 벤처펀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민간자금 유입 촉진 ③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④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법」 설명회 자료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 관련 법률의 통합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벤처투자법」에 의한 벤처투자 관련 법률의 통합



〈자료〉 나수미(2020)

이러한 「벤처투자법」은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에 관한 법체계를 통합하여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투자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벤처투자법」 제정 이후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있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신설한다. 둘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SAFE) 도입으로 벤처투자 방식이 확대됐다. 셋째, 투자 의무 규제의 완화이다. 넷째, 행위제한의 완화로 후속투자 및 조합 간 상호출자가 가능해졌다. 다섯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문화하였다. 여섯째, 투자목적회사(SPC) 지분 매입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첫 번째 변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합한 벤처투자조합이 신설되었다. 그동안은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한국벤처투자조합(KVF)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각각 서로 다른 법에서 규율함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하였다. 「벤처투자법」은 두 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법 §50~65).

「벤처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벤처투자펀드가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KVF),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 PEF가 있었으며 소관 법률에 따라

해당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달랐다(나수미, 2020). 벤처캐피탈의 유연한 펀드 운용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KVF)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KVF)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총 920개를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3-19]와 같다.

[표 3-19] 벤처투자법 제정 전후 벤처투자펀드 종류 (조합 수는 '19년 말 기준)

구분	PEF	VC Funds			벤처투자조합
	창업·벤처 PEF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KVF)	창업투자조합	
근거 법령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업지원법	벤처투자법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도입 시기	2017년	1997년	1997년	1986년	2020년
도입 목적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건전한 발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벤처·중소기업 투자	중소기업 창업 촉진을 위한 투자(주로 초기 기업)	→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
결성 주체	PEF GP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LLC, 외국투자회사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LLC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LLC, 외국투자회사, 창업기획자, 한국벤처투자
조합 수	56개	799개	920개		

〈자료〉 나수미(2020)

두 번째 변화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투자방식¹⁰⁾을 도입한 것이다(법 §2, 규칙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은

신용도가 높지 않고 유형 자산보다는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의 자금 공급에 유인을 제공한다(니수미, 2020). 시행규칙 3조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요건은 아래 [표 3-20]과 같다.

[표 3-20]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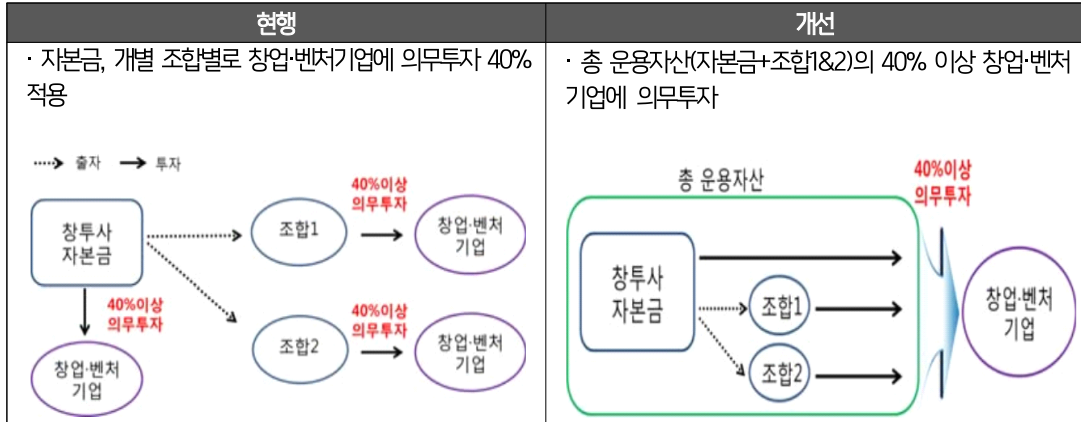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요건
① 투자금액의 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음 ② 투자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후속 투자의 기업가치 평가에 연동하여 지분량을 확정 ③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 필수 ④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받은 후 회사의 자본변동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 필수

<자료>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

세 번째 변화는 투자의무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에 부과되는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하여 전략적이고 유연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 본래 자본금과 개별 펀드별로 각각 부과하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를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변경하였다(법 §38).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투자의무비율 기준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7]과 같다.

10) 투자 계약 체결 시 향후 투자단가의 결정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설정하고, 지분율 및 최종 투자단가 등과 같은 나머지 구체적인 투자조건들은 후속 투자 시의 기업가치 평가에 따라 확정되도록 하는 방식

[그림 3-기]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투자 의무비율 기준 조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등록 후 3년이 지난 때까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의 40% 이상을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투자해야 한다. 비율을 산정하는 금액은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사용한 투자금액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혹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자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투자비율에 포함한다.

이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나수미, 20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본래 의무투자를 수행한 이후에도 출자금의 40% 이내 범위에서만 해외투자를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벤처투자조합은 의무투자를 준수한 후에는 해외투자에 대해 제한이 없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비율제도 일부를 완화하였다(법 §13). 개인투자조합은 「벤처기업법」 상 관련 사항을 「벤처투자법」 으로 이관하면서 등록요건과 같은 제도는 그대로 두었으나 투자 의무와 관련한 기존 투자비율을 일부 완화하였다. 본래 개인투자조합은 모든 자금을 벤처기업 및 비상장 창업자에 투자해야 했으나, 「벤처투자법」 시행 이후에는 벤처기업 및 등록 후 3년 이내 비상장 창업자에 50% 이상 의무투자를 달성하면 그 외의 자금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네 번째 변화는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후속 투자 및 조합 간 상호출자가 가능해졌다

는 점이다. 「벤처투자법」 전에는 창업투자조합과 특수관계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었다. 「벤처투자법」 제52조는 벤처캐피탈의 후속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거래행위 제한 대상에서 창업투자조합의 특수관계인을 배제하였으며, 그 대신 GP의 계열회사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본래 존재하던 창업투자조합의 「금융실명법」에 따른 투자 제한이 완화되어 벤처투자조합 간 상호 출자가 가능해졌다.

다섯째 변화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¹¹⁾의 투자를 명문화하였다. 「벤처투자법」 제39조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지분 취득 및 소유를 제한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로서 SPAC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SPAC 투자를 명문화한 것으로, 벤처캐피탈의 계열회사로 SPAC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의 SPAC 투자 내용을 명문화하여 벤처캐피탈의 고유계정은 물론 벤처투자조합으로도 SPAC 투자가 가능해졌다. 벤처투자조합의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는 출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SPAC 주식 취득은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로 간주하지 않아 벤처투자조합의 SPAC 투자를 명문화하였다(법 §51).

여섯 번째 변화는 투자목적회사(SPC) 지분 매입을 허용한 것이다.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 5항 2호에서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투자목적회사의 투자의무인정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할 것으로 명시하였다. 원칙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의 GP는 GP의 계열회사 지분 매입을 제한하지만, 동일 GP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의 지분 매입은 허용한다. 즉, 벤처캐피탈의 SPC의 지분 매입을 허용한 것이다.

일곱 번째 변화는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 점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었지만, 「벤처투자법」은 개인투자조합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법 §24).

벤처투자제도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 [표 3-21]과 같다.

11)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는 주식의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를 말한다(한국상장사협의회, 2009).

[표 3-21]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변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을 신설 ②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방식의 확대 ③ 투자 의무 규제의 완화 ④ 행위제한의 완화로 후속 투자 및 조합 간 상호출자가 가능 ⑤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KSPAC) 투자를 명문화 ⑥ 투자목적회사(SPC) 지분 매입의 허용 ⑦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

〈자료〉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

한편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의 투자 비율, 등록 요건,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0월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이 국내 최초로 제도화되었다.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은 민간 재원으로 벤처기금(펀드)의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3). 벤처생태계가 잘 조성되어 있는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기금(펀드) 조성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개정이 의결됨에 따라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벤처모기금(펀드)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 ①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며,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는 벤처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 ②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 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 ③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상향하고, 사모기금(펀드)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를 허용하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러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 제도가 시행되면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이 활발히 조성되어 정부 모태기금(펀드)과 함께 민간자본 유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4월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전세계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초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펀드 0.2조 원, 융자 1.2조 원, R&D 4.7조 원 등 총 6.1조 원을 지원한다. 중기 성장단계 기업을 대상으로는 펀드 1조 원, 융자 0.9조 원 등 총 1.9조 원을 지원한다. 후기 성장단계기업에 대해서는 융자 0.1조 원, 펀드 0.3조 원 등 총 0.4조 원을 지원하고 M&A 촉진을 추진한다.

둘째, 민간의 벤처투자를 촉진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3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마중물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과감한 규제 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 → 1%로 확대하며,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투자를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셋째,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하여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인재 유치를 지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높인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 계획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한다. 또한 벤처투자 동향에 대해 벤처투자회사, 정책금융기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데이터를 포함하여 벤처 통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은 다음 [표 3-22]와 같다.

[표 3-22]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3가지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10.5조 원 추가 지원 ②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③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변화는 첫째, 기업의 성장단계별 정책 수요에 맞춰 10.5조 원 추가 지원, 둘째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 셋째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이다.

제5절 소결

본 장은 크게 7가지인 국내 벤처투자기업 현황, 주요 벤처투자기업 현황, 국내 벤처투자 펀드 규모 현황,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 정책 현황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국내 벤처투자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벤처투자기업은 2022년 현재 총 231개사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등록하여 운영 중이며, 이 중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벤처투자금융의 시초인 한국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대표적 벤처투자기업이다.

국내 벤처투자기업들은 2022년 기준으로 조합 1,737개를 운영 중이며 총 약정금액은 51조 2,653억 원이다. 신규 조합의 조합원 구성비는 2022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22.6%로 가장 높은 편이며, 일반 법인은 17.6%, 한국모태펀드가 13%, 개인투자자 전체가 12.1%를 차지하고 있다. 펀드 출자 비중은 최근 5년간 금융기관과 모태펀드 등 공공 부문의 출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요 벤처투자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가장 대표적인 벤처투자기업은 한국모태펀드 운영사인 한국벤처투자이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다수의 정부기관이 투자 재원을 공급한다. 한편 경남벤처투자는 민·관·금 협동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벤처투자기업으로 2019년에 설립되었으며, 설립 3년 차인 2021년에는 한국모태펀드 출자 공모에 선정되어 200억 원을, 2023년에는 모태펀드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출자사업 위탁운용사에 선정되어 280억 원 규모의 출자가 가능해졌다.

대전시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을 위해 2022년 7월에 대전시청에서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내 최초로 펀드와 저금리 여신을 포괄하는 공공형 기업투자 금융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투자청을 먼저 설립하고, 향후 기업금융 중심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내 벤처투자 펀드 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벤처투자 펀드 규모는 2022년 6조 7,640억 원이다. 역대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했던 2021년에 이어 2022년이

두 번째를 차지했다.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된 벤처기업의 수는 1998년 2,042개사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현재 35,123개사가 존재한다. 벤처기업의 증가세와 더불어 벤처투자기업과 벤처투자금융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음으로, 업종별 벤처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년에 벤처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벤처기업은 2,474개사이다. 업종별로 유통·서비스,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3개 업종이 전체 벤처투자의 70.5%를 차지한다. ICT 서비스의 벤처투자 금액은 2조 3,518억 원(34.8%)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유통·서비스는 1조 3,126억 원 규모, 바이오·의료 산업은 1조 1,058억 원이 투자되었다. ICT 서비스 업종에서는 케이비인베스트먼트가 2022년 한 해 62개 벤처기업에 총 1,354억 원을 투자하였고, 유통·서비스 업종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18개 벤처기업에 총 505억 원을 투자하였다. 바이오·의료 분야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가 벤처기업 18개사에 총 396억 원을 투자하였다.

다음으로, 업력별 벤처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창업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가 40.4%로 가장 높았고, 창업 후기 기업은 30%, 창업 초기 기업은 29.6%이다. 최근 5년간 벤처기업 업력별 투자 비중은 창업 초기 기업이 약 28.7% 수준, 창업 중기 기업이 약 40% 수준, 창업 후기 기업이 약 31.3% 수준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벤처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벤처투자는 서울의 벤처투자액이 3조 7,445억 원으로 과반인 55.3%를 차지한다. 광역시 수준에서는 대전이 3,606억 원으로 5.3%, 부산이 1,370억 원으로 2%이며, 이어 지방은 경기도 11,280억 원(16.7%), 경북 1,167억 원(1.7%), 충남 1,141억 원(1.7%) 순이다. 전국을 다시 구분해 보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이 4조 9,485억 원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하고 있어서 벤처투자금액의 수도권 비중이 매우 높다. 지역별 벤처기업 현황은 2022년 기준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업이 22,752개사로 전체의 64.8%를 차지하고 있다. 벤처투자 펀드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벤처기업들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소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관련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간 위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벤처투자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크게 7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7가지 변화

는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 신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방식의 확대, 투자의무 규제의 완화, 행위제한의 완화로 후속 투자 및 조합 간 상호출자가 가능,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문화, 투자목적회사(SPC) 지분 매입의 허용,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을 말한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인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혁신을 제시하였다.

제4장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제1절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현황

제2절 벤처투자 종사자 정성조사 결과 및
분석

제3절 향후 기본 방향

제절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현황

고양특례시는 성장 가능성 있는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잠재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펀드 조성의 목적은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고양벤처펀드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근거로 한다. 재원에 대한 근거는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이다.

고양벤처펀드를 위한 출자 배경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고양특례시 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 유치를 희망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단 고양특례시 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업 성장에 따른 민간일자리 확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편이 유익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투자 방식 등 새로운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창업·벤처기업이 기업투자방식을 통해 성장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도 모태펀드로 이 정책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투자재원 선순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서이다. 고양벤처펀드는 최소한의 재정투자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이뿐만 아니라 고양벤처펀드는 2년 단위별 출자사업을 추진하며 고양특례시가 20억씩 4호 펀드까지 출자 후 5호 펀드부터는 1호 펀드 회수금으로 재출자하는 선순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벤처펀드 연도별 출자계획은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고양벤처펀드 연도별 출자 계획 (단위: 천원)

계	연도별 출자 계획				
	2020년	2022년	2024년	2026년	2028년 이후
8,000,000	2,000,000 (1호펀드)	2,000,000 (2호펀드)	2,000,000 (3호펀드)	2,000,000 (4호펀드)	1호펀드 회수금 출자

이러한 고양벤처펀드 1호와 2호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양벤처펀드의 출자 근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이다. 고양벤처펀드 1호의 목적은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에 재정투자와 외부 투자자본을 유입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이다. 조성 규모는 시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3억 원이다.

고양벤처펀드 1호의 목적, 투자 대상, 조성 규모, 사업 기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양벤처펀드 1호 현황 >						
○ 목적: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에 재정투자와 외부(중앙, 민간) 투자자본을 유입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투자 대상: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						
○ 조성 규모: 273억 원(市 20억 원, 모태펀드 100억 원, 민간 153억 원)						
구분	市	모태펀드	㈜아모레퍼시픽그룹	LG유플러스	엑스얼라이언스	위벤처스
출자 금액	20억	100억	100억	30억	20억	3억
○ 사업 기간: 2021. 1. ~ 2029. 1. (총 운용기간 8년 / 4년 투자·4년 회수)						

다음으로 고양벤처펀드 2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양벤처펀드 2호의 목적은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의 재정투자와 외부 투자자본을 유입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창

업·벤처기업이다. 조성 규모는 시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15억 원이다.

고양벤처펀드 2호의 목적, 투자 대상, 조성 규모, 사업 기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양벤처펀드 2호 현황 >						
○ 목적: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에 재정투자와 외부(중앙, 민간) 투자자본을 유입해 기업의 성장과 민간일자리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투자 대상: 창업 7년 이내의 메디컬·바이오,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스타트업·창업·벤처기업						
○ 조성 규모: 215억 원(市 20억 원, 모태펀드 150억 원, 민간 45억 원)						
구분	市	모태펀드	마이다스 동아 인베스트먼트	엔브이씨 파트너스	동아일보사	엔젯
출자 금액	20억	150억	15억	15억	10억	5억
○ 사업 기간: 2023. 1. ~ 2031. 1. (총 운용기간 8년 / 4년 투자4년 회수)						

이외에도 고양특례시는 고양벤처펀드뿐만 아니라 고양청년창업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시비 10억 원과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벤처투자회와 펀드 운용사, 기타 민간 투자사 등이 출자해 총 100억 원 내외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용기간은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을 합쳐 8년이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고양시 출자금의 2배를 시 소재 청년·초기 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조건이 있어 관내 기업에 투자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¹⁾. 고양청년창업펀드의 목적은 성장 가능성 있는 청년 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양특례시는 2023년 1월부터 청년창업펀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지방재정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하였다. 제274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펀드 조성을 위한 현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기반이 조성되었다.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창업 멘토링데이를 통해 창업·벤처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관내 스타트업 판매 촉진을 위한 팝업스토어,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고양원스톱창업플랫폼, 국내외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위한 전시회 참

¹⁾ 국제뉴스(<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dxno=2849129>)

가비용을 지원한다.

고양청년창업펀드의 목적, 투자 대상, 조성 규모, 사업 기간 등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고양청년창업펀드 현황 >

- 목적: 성장 가능성 있는 청년창업기업의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도모
- 투자 대상: 관내 소재(이전) 청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기업
- 조성 규모: 100억 원 내외(市 10억 원, 모태펀드 및 민간자본 90억 원)
- 사업 기간: 2023~2031년 (펀드 결성일로부터 8년, 투자 4년, 운용 4년)
- 조성 형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출자 조건: 시 출자금의 2배 이상 금액에 대하여 관내(이전) 청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기업에 투자
- 기대 효과: ①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통해 성장 가능성 있는 청년창업기업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확보, ②정부 및 민간자본을 활용한 지원 규모 확대 및 고양벤처펀드와 연계한 단계별 기업 투자환경 조성

고양벤처펀드는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조성되었다. 이미 2호까지 조성되었으며 청년창업펀드까지 조성되어 잠재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고양벤처펀드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몇 가지 개선사항이 발견되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고양벤처펀드 개선사항	-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의 벤처투자 및 펀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교육 등 필요
	- 벤처투자 및 펀드의 다양화와 다각화 필요
	-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 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개념, 특징, 현황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접근 방법, 조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권자들을 이해

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지식이 없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양벤처펀드 1호는 2018년부터 기획되어 2020년 연말에 조성·운영되었고, ‘격년제’ 조성이라는 운영 방안을 안착시켜 고양벤처펀드 2호가 2022년에 조성·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산업군, 기업 규모, 출자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 펀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펀드 조성 전 후에 창업기업, 스타트업, 투자 주체(투자사, 기업, 대학 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IR데이, 데모데이, 멘토링데이, 캠프 등이 있다.

제2절 벤처투자 종사자 정성조사 결과 및 분석

1. 분석 개요

1) 정성조사 목적

국내 벤처투자 관련 종사자들에게 벤처투자 현황,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정성조사 대상과 내용

조사 대상은 벤처투자 관련 종사자이며,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서면조사 및 일대일 심층면접조사로 수행하였다. 조사 규모는 온라인 조사 12명, 심층면접조사 4명이며, 조사 기간은 약 5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참석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세부 업무는 아래 [표 4-2]와 같다.

[표 4-2] 정성조사 응답자 참석자 프로필

연번	담당 업무	세부 업무	이름	성별	연령대	참석 날짜
1	벤처투자사	직접 투자 및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담당	김00	남성	30대	6월 29일
2	펀드매니저	글로벌 자산배분 관련 펀드 운용 및 펀드 운용에 필요한 모델 개발	조00	남성	30대	7월 6일
3	교수	생산관리 및 지역벤처펀드 연구	박00	남성	40대	10월 18일
4	공무원	경남벤처투자 설립 및 운영	이00	남성	40대	10월 20일
5	심사역	벤처투자(VC)	박00	남성	30대	10월 26일
6	심사역	벤처투자(VC)	이00	남성	30대	10월 26일
7	심사역	금융투자업	박00	남성	30대	10월 26일
8	심사역	ICT 등 일반(비바이오)	박00	여성	30대	10월 26일
9	심사역	VC(벤처캐피탈)	오00	남성	30대	10월 27일
10	심사역	벤처투자(VC)	김00	남성	30대	10월 27일
11	심사역	테크 및 이 분야(AC)	김00	남성	30대	10월 27일
12	심사역	벤처투자(VC)	김00	남성	30대	10월 27일
13	심사역	액셀러레이터(AC)	박00	남성	30대	10월 27일
14	심사역	금융 벤처투자(VC)	최00	남성	30대	10월 27일
15	심사역	벤처투자(VC)	박00	남성	30대	10월 27일
16	심사역	벤처투자(VC)	홍00	남성	30대	10월 27일

2. 정성조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벤처투자 현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내 벤처투자 현황

구분	응답 내용
국내 벤처투자 현황	<p>○ 서울 이외 지역은 대체로 열악한 편</p> <p>“벤처투자와 관련된 인프라가 서울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서울 이외 지역은 벤처투자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p>

구분	응답 내용
	<p>○ 서울 이외 지역은 투자 인프라 부족으로 업체 발굴 및 투자에 어려움</p> <p>“저희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창업기업들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기관 성격상 정책적 목적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나 투자 인프라 부족으로 업체 발굴 및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p> <p>○ 서울 외 지역의 가장 어려운 점은 정보 격차</p> <p>“서울 외 지역의 벤처투자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정보 격차입니다. 투자업체의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어, 우수한 기업들은 투자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 같은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p> <p>○ 서울 외 지역 관련 인프라가 부족</p> <p>“관련 인프라가 서울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한 것이 제일 큰 문제점이고, 따라서 유망한 벤처기업이라도 투자를 제때 받지 못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투자 관련 인프라가 잘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

심층 인터뷰 응답자의 내용을 요약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벤처투자 인프라는 대체로 열악한 편이며, 인프라 부족은 우수한 기업들의 투자 정보 격차를 높이게 되고 결국 지역 투자 활성화에 영향 미친다고 보고 있다.

2)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벤처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과 지방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응답 내용
벤처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	<p>○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교류</p> <p>“벤처투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니만큼, 상호 간에 많은 정보가 있어야 투자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p>

구분	응답 내용
	<p>○ 관련 종사자들 간 정보 교류, 인적 네트워크 확립이 필수적</p> <p>“벤처투자를 위해서는 관련 종사자들 간의 정보 교류, 인적 네트워크 확립이 필수적이고, 해당 업종에 종사했던 경력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및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p>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p>○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그 지역을 잘 아는 기관이나 AC, VC가 선행 투자</p> <p>“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지역을 잘 아는 기관이 기업을 홍보하고 선행 투자를 진행한다면 서울의 민간 투자업체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고, 기업 또한 홍보 및 정보 수집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 지자체 중심으로 인프라 구성</p> <p>“지방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벤처투자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면 대형 벤처투자 기업들도 점차 지방의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늘릴 것입니다.”</p>
	<p>○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및 인프라 구축</p> <p>“또한 지역 내 벤처기업이 위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좋으며 가령 일산에 방송국이 많으니 콘텐츠 혹은 엔터 기업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나 보육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몰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 편드를 운영하는 투자사에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p> <p>“유휴부지 등을 벤처 관련 시설로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투자사에 시설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비용 지원 등 지역사회 내로 끌어들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유망한 기업이 고양시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p>
	<p>○ 고양시 특화 산업 분야 적극 육성</p> <p>“고양시에 특화된 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합니다.”</p>
	<p>○ 협력 네트워크 구축</p> <p>“지방 소재 기업IR행사 및 투자기관 교류의 장을 확대해야 합니다.”</p> <p>“지역 간 교류와 협업으로 서로의 강점을 공유 및 발전시키는 등 기업들의 성장 촉진이 필요합니다”</p>

구분	응답 내용
고양특례시 벤처펀드 활성화 방안	<p>○ 벤처펀드의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자금 마련</p> <p>“고양시는 벤처펀드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p>“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정부 등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p> <p>○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협력 필수적</p> <p>“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팀 구성 및 투자 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벤처펀드의 운영을 강화해야 합니다”</p> <p>“벤처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p> <p>○ 네트워크 구축</p> <p>“고양시는 벤처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연결을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이 필요합니다.”</p> <p>“스타트업 대상 지원정책의 확대, 예산 확충 및 유관기관/투자자와 스타트업, 시와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관련 행사 개최, 정기화 등이 있습니다.”</p> <p>○ 지방소재 기업 및 벤처펀드 적극 홍보</p> <p>“고양시 기업 및 벤처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투자기관 네트워크 확보, 투자 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후속 투자 유치 등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p>
지역 공공 벤처투자(AC, VC) 설립	<p>○ 지역 공공벤처투자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제공 역할</p> <p>“공공벤처투자조합은 지방 투자 활성화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인 대형 벤처투자 기업들은 서울에 위치한 관계로 그 외 지역기업들에 대해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역 소재 공공벤처투자조합들이 벤처투자 인프라를 구축하여 벤처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한다면 그 지역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입니다.”</p> <p>○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 및 투자 가능</p> <p>“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적합한 투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사가 좀 더 지역에 특화된 운영을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구분	응답 내용
	<p>○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 줄 것</p> <p><i>“지역 공공 AC, VC가 조성·운영된다면 벤처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벤처펀드가 아니라 어떤 인프라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벤처펀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i></p>

요약하면, 벤처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종사자들 간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확립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하기 전에 상호 간에 신뢰를 쌓아야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양특례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벤처투자(AC, VC)를 설립을 통한 선행 투자, 지자체 중심의 인프라 구성, 특화산업 적극 육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 벤처펀드 관련해서는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전문가 협업, 네트워크 구축,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을 한다면 벤처투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과 투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제3절 향후 기본 방향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의 벤처투자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다. 고양특례시도 마찬가지로 벤처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고양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규모나 실적 측면에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개념, 특징, 현황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접근 방법, 조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군, 기업 규모, 출자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 바이오, 스마트팜 등의 산업군별 펀드, 외국인투자기업 중심 펀드, 기업 규모별 펀드, 출자 주체(병원, 대학, 관내 민간기업 등)에 따른 펀드 등 다양한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과 홍보가 필요하다. 펀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펀드 조성 전후에 창업기업, 스타트업, 투자 주체(투자사, 기업, 대학 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홍보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벤처투자 자금 조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의 벤처펀드는 고양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업무들로 인해 벤처펀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며,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에 의존하는 고양벤처투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역량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전문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향후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을 한다면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과 투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결국,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자체가 먼저 끌어주고 이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결론

벤처투자는 기업의 운영과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3.4월)」을 발표한 이후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3.8월)」까지 수립하면서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산업 분야별 창업생태계 환경 조성에 집중하였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1,000억 규모의 벤처투자 모펀드인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과 대형 투자 또는 후속 투자가 필요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단계별 스케일업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향후 2,500억 원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상남도는 벤처투자회사인 (주)경남벤처투자를 설립하여 중소 벤처·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 (주)경남벤처투자는 은행권의 융자 방식 대신 자본투자 형태로 운용하여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산업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투자하여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고양특례시도 마찬가지로 벤처투자를 통해 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고양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규모나 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출자금 2배 의무투자 이후 투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 추진관계자들에게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개념, 특징, 현황을 비롯해서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접근 방법, 조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과 이해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군, 기업 규모, 출자 형태 등에 따라 다양한 투자 요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다각화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 바이오, 스마트팜 등의 산업군별 펀드, 외국인투자기업 중심 펀드, 기업 규모별 펀드, 출자 주체(병원, 대학, 관내 민간기업 등)에 따른 펀드 등 다양한 벤처투자 및 펀드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사업과 홍보가 필요하다. 펀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나 펀드 조성 전후에 창업기업, 스타트업, 투자 주체(투자사, 기업, 대학 등)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와 홍보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벤처투자 자금 조성, 전문가와의 협업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 설립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의 벤처펀드는 고양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여러 업무들로 인해 벤처펀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전문적인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외부에 의존하는 고양벤처투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용기간이 길지 않아 역량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진다. 따라서, 벤처투자 및 펀드사업을 전문화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담하는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향후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을 한다면 벤처투자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지역 상황에 특화된 운영과 투자,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결국, 고양특례시 내 공공벤처투자(AC, VC)설립은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참여하는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를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지자체가 먼저 끌어주고 이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강신형·황정태. (2018). 기업의 벤처투자 경험 다양성이 탐험적 벤처투자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47(1), 45-66.

경남벤처투자 홈페이지

고병기, 박솔잎, 김다혜, & 성창수. (2022).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팁스 (TIPS) 투자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7(5), 31-47.

구경철·이철규·유왕진. (2008). 학술연구: 한국 벤처캐피탈의 투자결정모형 도출 및 타당성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11(4), 1-20.

구중희·김영준·이수용·김도현·백지연. (2019).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결정에 미치는 요인 연구. 벤처창업연구, 14(4), 1-18.

김승찬·김홍근. (2019). 개인투자조합 출자자의 출자의사결정요인 실증연구: 벤처기업 투자의사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2(11), 2051-2084.

김정훈·박성환. (2013). 벤처캐피탈 투자가 창업기업의 IPO 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 정책연구, 18(1), 83-103.

김주성·홍다혜. (2013).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의 국내·외 투자 현황 및 운영사례 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5-206.

나수미. (20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 시장의 변화 전망. 중소기업포커스, 2020(19), 1-26.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대체투자, 바늘구멍 경쟁 뚫은 지역혁신펀드 GP 6곳은, 2023.04.13.

러닝메이트(2018). 뉴머니, 북 바이 퍼블리

박지영·신현한. (2020). 벤처캐피탈 투자가 벤처기업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5(1), 1-15.

벤처투자종합포털 <https://www.vcs.go.kr/web/portal/contents/M02020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home/viewHome>

스타트업레시피(2022) 2022 대한민국 벤처캐피탈 현황 리포트.

신혜란·한인구·주지환. (2022). 벤처캐피탈 투자에 따른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실적 및 경영성과 분석, 벤처창업연구, 17(2), 33-51.

아세안문화경제미디어, 경남 유일 창투자 경남벤처투자, 250억 중소벤처창업 펀드 결성, 2020.03.23.

오세경·한형호. (2014). 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코스닥 IPO 기업의 장단기 성과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27(3), 457-491.

윤삼근(2019). 투자유치전략: 벤처 스타트업 투자유치를 위한 지침서, 창업일보

윤영숙·황보윤. (2014). 엔젤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47-61.

이광용·신현한·김소연. (2019).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코스닥 IPO 기업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2), 15-30.

이명준·조성국·정성욱. (2021). 벤처캐피탈 및 사모펀드 투자유치 바이블, 북포어스 이지언. (2018). 국내 벤처금융의 현황과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27(21), 3-8.

이택경. (2021). VC가 알려주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전략, 나무PR

조봉현. (2020).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추진 방안. 글로벌금융리뷰, 1(1), 189-22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 <http://diva.kvca.or.kr/div/cmn/DivDisclsMainInq>
중소벤처기업부(2021)

—————(2023), “국내에서도 민간이 중심이 되는 벤처모기금(펀드) 시대 열린다”, 보도자료

—————(2023),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23),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2023.01.29.

- (2022), 지역 벤처투자 활성화 위한 지방전용기금(펀드) 4,700억 원 조성, 2022.02.04.
- 차명수. (2009). 학술연구: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연구: 판단분석의 활용.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12(4), 19-43.
- 한국금융(2023), 지난해 VC 신규 투자 6,8조원 12% 줄어..초기기업 투자 2조원 돌파, 2023.2.14.,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302140912287421ee0209bd21_18
-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23), 2022년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공시자료
- 한주형·황보윤. (2020).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결정요인. 벤처창업연구, 15(1), 31-44.

[해외문헌]

- Brav, A., & Gompers, P. A. (1997). Myth or reality? The long-run underperformance of initial public offerings: Evidence from venture and nonventure capital-backed companies. *The journal of finance*, 52(5), 1791-1821.
- Chemmanur, T. J., Loutskina, E., & Tian, X. (2014). Corporate venture capital, value creation, and innov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8), 2434-2473.
- Cohen, S. & Hochberg, Y. V.(2014). Accelerating startups: The seed accelerator phenomenon, Available at SSRN 2418000
- Fried, V. H., & Hisrich, R. D. (1994). Toward a model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 decision making. *Financial management*, 28-37.
- Kenny, D., & Marshall, J. F. (2000). Contextual marketing. *Harvard business review*, 78(6), 119-125.
- Lerner, J. (1994). The syndication of venture capital investments. *Financial management*, 16-27.

- Maxwell, A. L., Jeffrey, S. A., & Lévesque, M. (2011). Business angel early stage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2), 212–225.
- Meggison, W. L., & Weiss, K. A. (1991). Venture capitalist certification in initial public offerings. *The journal of finance*, 46(3), 879–903.
- Muzyka, D., Birley, S., & Leleux, B. (1996). Trade-offs in the investment decisions of European venture capitalist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1(4), 273–287.
- Shrader, R. C., & Simon, M. (1997). Corporate versus independent new ventures: Resource, strategy, and performance differen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1), 47–66.
- Tian, X., & Wang, T. Y. (2014). Tolerance for failure and corporate innovation.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1), 211–255.
- Tyebjee, T. T., & Bruno, A. V. (1981). Venture capital decision making: Preliminary results from three empirical studie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281320.
- Warne, F. K. (1988). *Essays on the venture capital market*. Yale University.
- Wells, W. A. (1974). *VENTURE CAPITAL DECISION-MAKING*. Carnegie Mellon University.

Abstract

A Basic Research on the Promotion of Venture Investment in Goyang City

Yong-Deok Kim²⁾, EunJi Kim³⁾

Although venture–invested companies and investments have been growing recently, there are no venture–invested companies in Goyang Special City and investment is insufficient. There are the largest number of venture companies in Gyeonggi Province, but it shows an investment level of a quarter compared to Seoul. In addition, there is often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und business. To solve this problem, variou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willingness to promote the project, the business approach, and the creation and operation method are required. In addition, Goyang Venture Investment, which relies on the outside, not only has limitations, but also has a problem that the accumulation of capabilities has not been made because the operation period is not long.

In order to specialize and maximize the fund busi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ocal public VCs in the long run.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be able to manage various funds and have the function to recruit investors with different

²⁾ Research Fellow, Goyang Research Institute, Korea

³⁾ Research Associate, Goyang Researcher Institute, Korea

interests. In addition, if investment in public VCs that know the region well is preceded, it can serve as an incentive to invest in private ACs and VCs. Finally, before and after the fund is created, opportunities can be created to gather with start-ups, and investment entities (investment companies, companies, universities, etc.).